

조선왕실 태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연구
-서삼릉 태실을 중심으로-

목 차

I.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2. 연구 방법 및 대상	6
3. 선행 연구 검토	10
II. 조선왕실 태실의 역사적 전개	17
1. 조선 전기 태실의 조성과 제도의 확립	17
2. 조선 후기 태실 제도의 추이	25
3. 일제강점기 서삼릉 태실의 조성	25
III. 조선왕실 태실 데이터 수집 및 정리	26
1. 문헌 자료 데이터	26
2. 인물 데이터	26
3. 장소 데이터	27
4. 사진·영상 자료 데이터	27
5. 메타데이터 정리	28
IV. 조선왕실 태실 온톨로지 설계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30
1. 클래스(Class) 및 속성(Attribute) 설계	31
2. 관계성(Relation) 설계	36
3. 데이터베이스 구현	37
V. 조선왕실 태실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38
1. 건국 시조의 탄생과 신화, 태조 태실	38
2. 역사적 실재와 기억의 변주곡, 단종 태실	39
3. 1934년 경평군 태실의 발견	40
4. 조선시대 안태사의 인적사항 추적	41
VI. 결론	41
참고문헌	45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류 문명은 보편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함께 배출된 태반을 소중한 상징물로서 여겨왔다.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1854~1941)는 『황금가지(The Golden Bough)』에서 감염주술(Contagious)의 한 사례로 태반과 태반이 출산으로 인해 아기와 물리적 결합이 끊긴 후에도 신체와 공감적 결합을 유지한다고 믿는 여러 민족의 관습에 대해 기술했다. 프레이저는 태반과 태반이 잘 보존되어 적절히 취급되면 그 주인인 아기가 영달하고 그것이 훼손 또는 손실되면 재난이 닥친다고 믿는 공통된 지점을 포착하여, 태반 혹은 태반과 관련된 신앙이나 관습은 옮겨 갈 수 있는 영(靈)이나 외적 영에 관한 광범위한 교리 및 그 교리에 기초를 둔 관습과 뚜렷하게 평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¹⁾

중국에서는 일찍이 한대(漢代)부터 태를 매장하는 시간과 처리방법, 그리고 태를 매장하는 위치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한 『태산서(胎產書)』, 『잡료방(雜療方)』 등의 문헌이 등장하였으며, 동진(東晉)에서 수당(隋唐) 사이에 나온 『산경(產經)』은 태의 처리와 관련한 금기(禁忌)를 비롯해 방법 등을 상술하고 있다. 특히 『산경』은 태를 깨끗이 씻도록 하는 세태(洗胎) 의식과, 태를 봉안한 항아리에 동전 등 기복적 측면을 띤 물품을 동봉해 매장하는 풍습 등을 기록하고 있어 동아시아의 장태문화(藏胎文化)²⁾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³⁾

일본 또한 고유의 장태문화로서 에나우사메(胞衣納, えなおさめ)라는 의식이 존재했다. 에나우사메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활동한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일기 『어당관백기(御堂關白記)』에 등장한다. 해당 기록에는 1009년 11월 25일, 훗날 고스자쿠 천황(後朱雀天皇)으로 즉위하는 아쓰나가 친왕(敦良親王)이 탄생하자, 12월 9일 태를 동방에 묻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⁴⁾

1)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저, 장병길 역, 『황금가지 1』, 울재, 2018, 90 ~ 93쪽.

2) 여러 문헌 자료에서는 ‘장태(藏胎)’와 ‘안태(安胎)’라는 용어가 큰 구분을 두지 않고 함께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태와 안태 두 단어는 모두 넓은 의미에서 ‘태를 보관한다’라는 뜻이다. 각각의 단어를 보다 세분화하면 안태(安胎)는 태를 ‘잘 값아 둔다’의 뜻이며 왕실의 태실 조성 및 연관된 의례나 기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태(藏胎)는 ‘태를 갈무리하다’라는 뜻으로 태를 땅에 묻는 것뿐만 아니라 태우거나 말리거나 물에 던져 버리거나 말려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 등 전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왕실 태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안태를 사용할 것이며, 이외에 ‘태를 묻는 행위’ 자체를 지칭할 때는 장태를 사용하겠다. 김용숙, 『한국 女俗史』, 민음사, 1989, 352쪽; 문화재청,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産俗篇)』 上卷, 1993; 문화재청,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産俗篇)』 下卷, 1994; 이규상, 『韓國의 胎室』, 청원문화원, 2005, 27~33쪽; 심현용, 「朝鮮時代 胎室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1쪽.

3) 요위위, 「중국의 장태문화」,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세계의 장태문화』, 성주군, 2016, 191 ~ 208쪽.

또한 1988년 나라 시(奈良市) 교육위원회가 평성궁(平城宮)의 외궁(外宮)인 좌경(左京)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스에기(須惠器)⁵⁾로 제작된 에나쓰보(胞衣壺)가 출토되었다.⁶⁾⁷⁾ 에나쓰보는 태반을 봉안한 항아리인데 앞선 『어당관백기』의 기록과 종합해볼 때 일본에서도 이미 나라시대(奈良時代) 혹은 그 이전부터 태를 매장하는 풍습과 이를 중요하게 다루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태의 처리에 대한 범세계적 신앙, 의례, 관습은 한국에서 태실의 조성이라는 장태문화로 발전하면서 다른 문화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상을 지니게 됐다.

조선왕실에서는 자손이 태어나면 왕실의 번영과 아기의 운명이 태(胎)와 관련 있다고 믿어 전국 각지에 길지(吉地)에 해당하는 산봉우리에 태를 묻고, 태를 봉안하기 위한 특수한 시설인 태실(胎室)을 조성했다. 그러나 국가 예제(禮制) 속에 태실이 정식적으로 편입된 것은 아니었으며 조선 후기 정조(正祖) 대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만이 유일하게 「태봉(胎峰)」 조목을 만들어 이를 가례(嘉禮)로 규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⁸⁾ 이는 태실 조성에 있어 그 사상적 기저로 작용하는 풍수(風水)·도참(圖讖)·지리(地理)·선택(選擇) 등의 요소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예제 속에 수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태실 조성의 기원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등장하며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상징물로 태실을 조성한 사례가 확인된다. 조선왕실 또한 이러한 전통을 보다 체계화하고 계승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길일(吉日)을 정하고 안태지(安胎地)까지 태를 옮겨 인력과 물자를 동원해 태실을 조성한 뒤 제례(祭禮)를 행하는 안태의례(安胎儀禮)가 국가 의례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태어난 아기가 국왕으로 즉위하면 기존에 설치된 태실을 가봉(加封)⁹⁾하는 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조선왕실 태실이 지닌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가봉태실이 조성되면 태실이 위치한 지방은 고을의 격이 승격되고 기존 설치되었던 태실에 가봉비(加封碑)와 함께 화려한 석물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 과정을 담은 의궤(儀軌)가 편찬되었다. 이처럼 조선왕실 태실은 정식적인 제도로 편입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설치되면서 시대에 따른 조형적 변형, 제도적 변천, 조성 공간의 변화 등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보이게 된다.

4) 中村禎里, 『胞衣の生命』, 海鳴社, 1999, 12쪽.

5) 일본의 고분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 생산되어 사용된 청회색 토기. 헤이안 시대에는 ‘도기(陶器)’로 쓰되 ‘스에모노(すえもの)’, ‘스에우쓰와모노(すえうつわもの)’등으로 읽었다. 스에기 토기의 기원은 한반도 남부 가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 鐘方正樹, 「胞衣を納むる位置と方角」, 『奈良市埋藏文化財調査センター紀要』, 奈良市教育委員會, 1989, 12쪽.

7) 노성환, 「고대 일본에서 본 한국의 태실문화」, 『일어일문학』, 제77집, 2018, 342~343쪽.

8) 『春官通考』卷六十八 嘉禮 胎峰 附 加封 修改.

9) 가봉(加封)은 ‘벼슬(爵)을 더하여(加) 봉한다(封)’는 뜻으로 가봉 시기는 국왕의 즉위 후 당사자에 의해 가봉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나 일부는 후대의 국왕에 의해서 가봉되는 사례가 보인다.

그러나 조선왕실 태실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20세기 초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된다.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 500년 역사를 끝마친 조선왕실은 이왕직(李王職)¹⁰⁾에 의해 통제되면서 기존 왕실에서 행해지던 여러 의례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때 태실 역시 1928년부터 1934년에 이르기까지 보존과 관리의 명목으로 서삼릉으로 이안(移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태실을 조성했던 초안지(初安地)는 민간에 불하되거나 현상이 크게 변경되는 등 적절한 보존과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왕실의 번영과 새로 태어난 생명의 미래를 염원하며 조성된 조선왕실 태실은 그렇게 본래의 역사적 의미를 크게 훼손당한 채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갔다.

훼손된 태실의 역사성을 복원하고 대중에게 그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함께 「고양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를 진행하여 서삼릉 소재 54기 태실의 초안지와 관련된 문헌 사료 및 현장 사진 자료를 확보하는 등 향후 태실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¹¹⁾¹²⁾ 또 2020년 1월 경기도는 그동안 문화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태실을 보호 관리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만들어 갈 보존 계획을 수립한다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¹³⁾ 충청남도 또한 2020년 5월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여 태실에 대한 보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태실에 대한 학술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 역사경관적 의미가 재생되고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태실에 대한 일련의 연구 성과나 현장에 대한 정보는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나 관심을 가진 대중이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태실이 위치했던 초안지는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 보존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 대다수 비지정문화재임과 동시에 수풀이 우거지거나 진입로를 찾기 힘들어 현장을 답사하는데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더불어 태실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행본은 연구서를 제외하면 전무하며 일부 단행본은 단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오류를 기술하고 있어 교차 검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웹상에서는 일부 태실 현장을 답사한 사람들에 의해 사진 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태실이 지니는 의미나 역사적 전개 등을 제대로 통찰하기 어렵다. 이는 태실과 유사 문화자원에 속하는 궁궐, 왕릉의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궁궐과 왕릉 두 문화자원의 경우

10) 이왕직은 일제 강점기 대한제국 황실의 일원들이 왕공족(王公族)으로 책봉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관련 사무 일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궁내성(宮內省) 소속의 기구이다.

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일제강점기 고양 서삼릉에 옮겨진 조선왕실 태실의 제자리 찾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12일자.

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19.

13)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경기도, 사라져가는 태봉(태실)문화재 보호 나서」, 《경기도 보도자료》, 2020년 1월 9일자.

14)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태실문화재 실태 연구용역」, 《도정공고》, 2020년 5월 21일자.

수도권이라는 물리적 접근성이 태실에 비해 뛰어나다는 점과 그간 학계 및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다. 왕실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궁궐, 왕릉 두 문화자원의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처럼 많은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든 요인이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태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앞선 두 문화자원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왕실 문화의 다각적 접근을 위한 노력이 궁궐과 왕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태실에도 그 초점이 맞춰질 때 비로소 온전히 조선왕실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리라 판단된다. 이처럼 조선왕실 태실의 역사문화적인 중요성과 별도로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자료의 양이나 본격적인 분석·검토는 미진하며 이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이 태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누구나 참조할 수 있고 축적된 연구 성과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주목하였으며, 디지털 환경 속에 서삼릉 소재 54기의 조선왕실 태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¹⁵⁾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아날로그 종이매체는 물리적인 공간·시간에 지배되는 ‘유한(有限)’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시시각각 새로운 정보가 갱신되는 현대에 이 유한한 정보는 편찬될 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놓치게 되거나 오기(誤記)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한 편집을 거치면 정보가 빠르게 갱신되는 것은 물론이고,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라는 무한한 공간 속에 분산된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이처럼 유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주제의 맥락에 맞게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었을 때,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연구자와 대중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콘텐츠의 재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서삼릉으로 이안된 조선왕실 태실은 20세기 초 일제에 의한 왕실 문화 파괴의 현장이자 한국 고유의 장태문화였던 태실의 종말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삼릉이라는 공간적 범주를 탈피하여 조선왕실의 역사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 역시 상기할

15) 데이터베이스는 다수의 응용 시스템들을 사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편성, 저장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목적은 데이터의 보안과 데이터 관리의 편리성 추구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데이터의 물리적·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유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 역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김현, 「인문정보 데이터베이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수업자료 (2020) 참조, <http://dh.aks.ac.kr/~tutor/Documents/PDF/Database/D1-데이터베이스개론.pdf>

필요가 있다. 서삼릉 태실은 국왕, 왕자, 왕녀 등 신분이 상이한 왕실 인물들이 ‘태실’이라는 중간매개를 통해 한 장소에 집약되어있다. 이러한 서삼릉 태실의 특수한 환경은 개개의 왕실 인물만을 살펴볼 수 있던 왕릉이나 묘와 달리 보다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왕실 인적관계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실이 조성되었던 초안지와 이안된 서삼릉 태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연결시켰을 때 물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초안지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현재 남아있으며 이를 훼손시킨 일제의 의도가 서삼릉 태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삼릉 태실을 조성하면서 훼손된 초안지의 역사적 의미가 디지털이라는 공간에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각 태실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점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고양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면서 서삼릉으로 이안되기 이전 태실이 소재했던 초안지의 위치를 고증하고 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등 기초 자료 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 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 자료와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한 태실과 관련된 텍스트를 함께 협업하는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미디어위키(Wiki)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피드백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구축되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새롭게 확보한 정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삼릉으로 이안된 조선왕실 태실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발견하여 이를 인문정보학적 방법론을 통해 지식 관계망을 구현하였다. 이는 단순히 태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태실이라는 대상을 매개로 한 여러 원천 자료나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유물, 태실이 위치한 초안지의 입지적 요건, 태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역사적 사건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조선왕실 태실의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도이다. 이와 같은 접근이 조선왕실 태실의 실체에 보다 근접하고, 나아가 서삼릉 태실이 지닌 역사적 성격이 확장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2. 연구 방법 및 대상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김현이 제안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rdic Archive, Encyves)’를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아날로그 세계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를 수집한 디지털 아카이브와 특정한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디지털 백과사전이 서로 연계되어 특정 대상을 파악하고자 하

는 이용자에게 유관한 지식 또는 실물자료 데이터와 제한 없이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웹에 산재된 다양한 정보들로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어 지식의 연결과 소통을 중시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상적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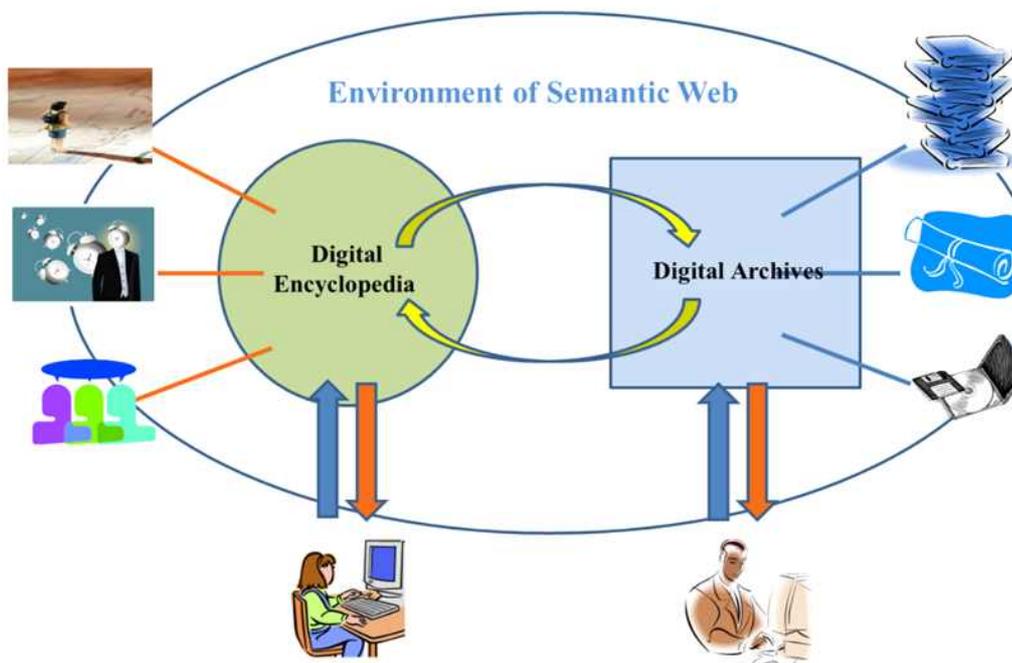


그림 I-1.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디지털 백과사전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융합¹⁷⁾

태실과 관련한 유물을 비롯하여 보고서와 학술논문, 문헌사료 등의 다양한 실물자료는 각 소장 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로 구축되어 공개되고 있다.¹⁸⁾ 해당 자료들은 태실에서 출토된 유물이 어떤 것이 현존하는지, 태실이 처한 현황과 조형적 특징은 어떠한지, 각 태실이 어떤 변천을 겪었는지 연혁 등을 살펴보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으나, 태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콘텐츠가 국립고궁박물관¹⁹⁾, 국립중앙박물관²⁰⁾ 등 각각의 아카이브로 분산되어 있어 이를 포괄적

16) 김현, 임영상, 김바로 공저,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204~206쪽;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화」, 건양대학교 발표자료, 2015 5월 14일.

17) 김현 외, 앞의 책, 204~208쪽.

18)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입장에서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1차 자료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정리,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등 아카이브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콘텐츠를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김현 외, 앞의 책, 2016, 192쪽, 각주38 참조.

19)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태실 관련 자료는 1996년 서삼릉 태실 발굴조사로 출토된 태항아리(胎壺), 태항아리 부속유물(목간, 금편, 은편), 태지석(胎誌

으로 살펴보기에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처럼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생성된 여러 콘텐츠가 있음에도 그것이 분산되어 있어 그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유관한 데이터 간의 의미를 연결시키도록 하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이다.

서삼릉 소재 조선왕실 태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방법은 먼저 기존에 웹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각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검토부터 선행한다. 예시로 서삼릉 태실 조성 당시 봉안되었던 태향아리와 태지석 등의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소장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각 지방에 위치한 태실을 이안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태봉(胎封)』과 같은 문헌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장서각’을 통해 원문 텍스트 및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선시대 태실의 조성과 관련한 논의 및 사건 등이 기술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 중인 ‘디지털 조선왕조실록’과 ‘디지털 승정원일기’를 이용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웹에 산재된 태실 관련 콘텐츠는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인데, 본 연구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들 자료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미디어위키’²¹⁾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하나의 위키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이다. 아울러 제작된 위키 문서 내에는 각각의 태실이 특정한 역사적 사실, 인물, 유물 등과 접목되는 여러 지점을 포착하여 이를 ‘네트워크 그래프’²²⁾로 시각화할 것이다.

石) 등과 1874년 순종(純宗)의 태를 봉안한 과정을 기록한 『원자아기씨장태의궤(元子阿只氏藏胎儀軌, 고궁2724)』가 있다. <https://www.gogung.go.kr/searchList.do>

20)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태실 관련 자료는 태향아리, 태지석 및 태실 출토 유물을 촬영한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등이 확인된다. 또한 조선총독부 박물관 문서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과정에서 발굴이 실시된 대전 가수원리의 경평군 태실 관련 문헌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collectionList>,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

21) 위키라는 플랫폼이 디지털 인문학에서 가지는 의미는 그것이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다. 위키의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의 양상은 위키 본연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다르지 않다. 하나의 위키 문서는 관련 있는 주제 및 문맥상의 키워드를 설명하는 또 다른 문서들과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된다. 사용자는 그러한 연결을 쫓아가면서 부분적인 지식 정보 사이의 맥락을 발견하게 된다. 위키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지식의 소비자인 동시에 지식의 생산자로서 직접 문서를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를 쫓아 넓은 범위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방법을 써서 부분적인 조각들을 연결할 수 있고, 서로 의미가 통하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김현 외, 앞의 책, 71~74쪽.

22) 인문 연구의 분야에서 탐구하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따라 시각화의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지만,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보여 주는 네트워크 시각화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 기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확산과 더불어 그 네트워크의 양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수요가 일어나면서 네트워크 시각화 기술의 활용이 일반화되었고, 이를 도와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었다. 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이러한 시각화 기술의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표현과 의미 있는 발견을 추구할 수 있다. 인문지식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일만은 아니다. 시각화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그 속에서 우

제 II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조선왕실 태실의 역사적 전개와 서삼릉 태실로 이안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실에서 태실의 제도적 변천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동시에 서삼릉으로 이안된 태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조망할 것이다.

제 III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조선왕실 태실, 그 가운데 서삼릉으로 이안된 54기의 태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생성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조선왕실 태실이라는 지식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분류하고 각 요소에 해당하는 정보 자원을 현장 조사를 통한 사진 및 영상자료와 문헌자료,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등에서 수집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메타데이터로 분류하고 이를 위키 문서로 작성하여 정리한다.

제 IV장에서는 조선왕실 태실이라는 대상 세계를 기술하기 위한 온톨로지(Ontology)를 설계한다. 제 III장에서 정리된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선왕실 태실의 지식을 기술하는 최소 단위가 될 노드(Node) 데이터를 유형(Class)별로 분류하고, 각 노드 유형에 맞는 속성(Attribute)과 관계성(Relation)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키 문서로 작성된 각 태실의 중요한 정보 사이의 의미적 연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그래프를 제작한다.

제 V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한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 속에 생성된 각 태실의 위키 문서 가운데 의미적 연관관계를 보이는 요소들 간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를 표본으로 해당 태실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태실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식요소 간의 연결 관계가 직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형태로 유기적으로 관계성이 드러남에 따라 기존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지 못한 정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의 네트워크(Semantic Data Network)' 형태로 가공된 조선왕실 태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태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왕실 태실을 보다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조선왕실 태실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연구대상 기초자료는 태실의 조성과 수개(修改), 안태의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서술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실의궤』, 『태봉등록(胎峰臚錄)』 등의 문헌자료가 대표적이며, 이와

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김현, 「데이터의 시각화:네트워크 그래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수업자료, http://dh.aks.ac.kr/Edu/wiki/index.php/데이터의_시각화:_네트워크_그래프

함께 각 태실이 이안될 당시의 관련 문서를 정리해둔 이왕직의 『태봉』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문헌자료 속에서 나타난 태실 관련 기사를 기존 선행 연구와 비교 검토하며 고증할 것이다. 문헌자료와 함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진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진 자료는 본 연구자가 「고양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면서 촬영한 태실의 초안지, 초안지 주변에 흩어진 기존 태실 관련 석물, 서삼릉 태실 이안지(移安地)가 있으며,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태실 출토 유물 사진 및 근대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을 모두 포함한다. 해당 사진 자료들이 어떤 태실과 연관이 있는지 고증하여 데이터로 생성될 위키 문서 내에 첨부할 것이다.

기타 각 데이터에 대한 부가자료는 웹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디지털 백과사전 등을 참조할 것이다.²³⁾

3.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의 선행 연구 검토는 고고학·문헌사적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개요를 살피고 데이터 설계와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디지털인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태실을 포함한 여러 조선왕실 관련 문화자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의 검토를 병행하여 그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1) 고고학·문헌사적 연구

1960년 전반부터 태실 출토 유물에 대한 연구가 등장한 이후, 태실에 대한 발굴 조사, 지표조사 등이 1990년대 중·후엽에 들어서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자, 태실을 주제로 삼은 고고학·문헌사적 연구는 상당한 진척을 보여 왔다. 또한 2000년대부터 풍수이론이 실제 태실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현장 분석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²⁴⁾ 2016년 심현용은 고고학·문헌사적 연구를 망라하면서 한국의 태실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집대성하였다.²⁵⁾

2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위키 실록사전, <http://dh.aks.ac.kr/sillokwiki>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24) 태실과 관련한 1963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행 연구를 종합한 연구 성과로는 심현용, 앞의 논문, 2015, 1~21쪽을 참조.

25) 심현용은 태실 출토 유물과 태실 구조 등 고고학적 연구와 태실의 주인공과 의례 및 왕실의 출산 등 문헌사적 연구, 태실의 입지와 풍수사상의 상관관계 등을 포함하여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자료를 정리한 『한국 태실 연구』(경인문화사, 2016)를 출판했다. 하지만 스스로 밝혔듯 태실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 것을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어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1999)는 1996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서삼릉 태실 집안지(集安地)를 시굴(표본)조사하고, 1996년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면 수습 발굴조사를 시행하였다.²⁶⁾ 그 결과, 이곳 태실의 구조를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태향아리, 태지석, 동전, 금편, 은편, 목간(홍패) 등 다수의 유물도 수습되었다. 특히 태향아리는 태실의 출토 유물 중 처음으로 통시적인 양식과 변천을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사로 인해 향후 태실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1999)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태실을 조사하였다.²⁷⁾ 조선시대 왕·왕비과 태실과 왕자·왕녀의 태실을 중심으로 하여 구전되는 태실도 함께 조사하여 화보식의 백과사전 형태로 소개하고 문헌사료를 살펴 태주나 안태시기 등도 간략히 검토하였다. 그동안의 태실에 대한 조사 중 가장 방대하고 종합적인 조사로서 그 의의가 크다.

윤석인(2000)은 서삼릉 태실 집안지를 직접 발굴조사하고 조선시대 태향아리, 태석함(胎石函), 아기태실비(阿只胎室碑), 태지석, 동전 등의 태실 유물에 대한 양식과 편년을 설정하였다.²⁸⁾ 그는 태실의 변천을 크게 6단계로 나누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가봉태실의 구조를 5단계, 태석함·아기태실비는 4단계, 태향아리·동전은 6단계, 태지석은 5단계로 나누었다. 특히 태향아리는 도질·분청·백자 등으로 구분하여, 백자 태향아리는 5단계로 나누어 전체 6단계로 구분하였다. 그의 연구는 조선시대 태실의 구조와 유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고고학적 연구로 그 의의가 높다.

김득환(2007)은 서삼릉에 있는 태실 집안지의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해 살펴보았다.²⁹⁾ 그러나 이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서삼릉 태실 발굴조사보고서(1999)를 요약한 것이며, 특히 이왕직이 54기의 태실을 서삼릉으로 이전한 것은 일제의 강압이 아니라 당시 이왕가(李王家)의 주체적이고 필요에 의한 행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현용(2015)은 아기태실의 구조와 가봉태실의 구조,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서삼릉 태실 집안지의 구조를 분석하고 조선시대 태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설을 하였다.³⁰⁾ 특히 그는 처음으로 실제 태실의 입지가 문헌사료에 나오는 기록과 다름을 주장하였다. 또 일제의 서삼릉 태실 집안지 조성은 조선왕실의 정기를 말살하고 조선의 패망을 백성들에게 알리려는 식민통치의 일환이었다고 하였다.

26) 국립문화재연구소, 『西三陵胎室』, 1999.

27) 이주환, 이진훈, 조원교 공저, 『朝鮮의 胎室』 I·II·III,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28) 윤석인, 「朝鮮王室의 胎室 變遷 研究 -西三陵 移藏 胎室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윤석인, 「朝鮮王室의 胎室石物에 관한 一研究 -西三陵 移藏 胎室을 中心으로-」, 『文化財』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윤석인, 「西三陵胎室 奉安遺物에 대한 研究」, 『江原考古學報』 11, 강원고고학회, 2008.

29) 김득환, 「서삼릉 -능역의 능묘와 태실 등에 대한 고찰-」, 『京畿鄉土史學』 12,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2007; 김득환, 『조선의 세계적인 문화유산 태실』, 책임는사람들, 2016; 김득환, 『조선의 세계적인 문화유산 태실 2』, 책임는사람들, 2018.

30) 심현용, 「II. 조선왕실의 태봉」, 『조선왕실의 태봉』,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심현용, 앞의 논문, 2015.

김문식(2018)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태봉(胎封)』을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신문과 관보(官報) 자료에 나타난 서삼릉 태실의 조성 과정과 현재 상황, 서삼릉 이안 이전 태실 초안지의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³¹⁾ 이는 『태봉』에 기재된 구체적인 태실 이안 과정을 살펴보고 초안지와 서삼릉 이안지의 비교 연구 사례로는 최초라 볼 수 있다.

윤진영(2020)은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전반을 개괄하고 태실 조성을 왕대별로 살펴보았으며, 안태 관련 의궤, 등록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³²⁾ 또 장서각 소장 『태봉』을 통해 이안 과정을 살펴본 동시에 서삼릉 태실 조성 당시 제왕태실과 왕자·공주·대군·옹주 등의 태실 배치, 표석 서사(書寫), 태지석, 약도, 도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디지털인문학 연구

인문지식 간의 다양한 관계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교실 및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그간의 선행 연구 가운데 데이터 모델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김미정(2013)은 원천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복식 정보 시스템의 모델을 보이기 위해,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를 표본으로 삼아 의궤에 나타나는 인물(직책명)과 복식, 그리고 반차도를 분석하여 ‘직책’, ‘복식’, ‘착용 정보’, ‘반차도아바타’, ‘복식용어사전’ 등, 총 5개의 테이블을 조직하여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설계하였다.³³⁾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모델 설계를 통해 그는 외부 유관 데이터와의 연계를 위한 활용방안으로 월드와이드웹을 통한 시각화 프로그램의 온라인 서비스, 복식용어에 고유한 식별자(URL) 부여를 통하여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 기계가독형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호정(2014)은 버추얼 컬렉션(Virtual Collection)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여, 한국 168개의 국보 및 보물급 도자유물과 중국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495개의 일급 도자유물을 대상으로 한 가상박물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전시 방안을 제시하였다.³⁴⁾ 그는 기존 온라인상에 서비스되고 있는 도자의 이미지와 정보를 바탕으로

31) 김문식, 「서삼릉 태실의 조성 과정과 태실의 현황」,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143~180쪽.

32) 윤진영, 『조선왕실의 안태의례』, 세창출판사, 2020.

33) 김미정, 「儀軌 復飾 정보의 電子的 활용 방안 연구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4) 호정, 「한·중 도자유물 가상 박물관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도자유물의 종류, 기법, 무늬, 형태, 기종, 분야별 분류 등의 기준을 만들었으며 각 도자유물의 시간정보, 공간정보를 추가하여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 등을 포함한 시각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러한 가상박물관 데이터베이스가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을 탐구하였다.

김사현(2015)은 문화유적과 관련한 인물, 사건, 장소, 문헌, 개념, 문화유산 등의 지식요소를 유형별로 찾아내고 상호간의 의미적 연결 고리를 갖게 함으로써, 해당 문화재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연결되는 ‘시맨틱 웹(Semantic Web)’³⁵⁾의 모델을 제시하였다.³⁶⁾ 그는 문화유적 안내가 문화재 안내판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온라인상의 문화유적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었음에도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문화재 안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지점과 온오프라인의 문화유적 안내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을 동시에 비판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는 시맨틱 웹을 목표로 설계된 기존의 문화유산 분야의 선진 정보 모델인 유로피아나 데이터 모델(Europeana Data Model, EDM), 한글 문화유산 데이터 모델(Hangeul Heritage Data Model, hhdm) 등을 벤치마킹하여 문화유적 안내에 적합한 체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경북공을 예시로 하여 이와 관련한 정보를 대상으로 지식정보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 사이의 관계성을 기술하여 문화적 지식 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각적으로 도출하였다.

김하영(2015)은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안 오천 광산 김씨 가문의 고문서 자료 가운데 50여 건의 분재기에 대한 정보와 『광산김씨족보』에 수록된 인물 정보를 데이터로 정리하여 연결하였다.³⁷⁾ Neo4j 그래프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통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러 가지 질의어(Query)를 사용해 다양한 맥락의 데이터를 출력해봄으로써, 개별 정보 요소 사이의 연계 가능성과 그로부터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김현(2016)은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디지털인문학이 어떤 과제와 목

석사학위논문, 2014.

35) 시맨틱 웹이란 “기계가 이해 가능한 데이터의 웹”이며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웹은 “인간이 이해 가능한 도큐먼트의 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간이 이해 가능한 도큐먼트의 웹”에서는 도큐먼트 내에 데이터가 잠재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계가 끄집어내는 것은 곤란하였다. “기계가 이해 가능한 데이터 웹”에서는 데이터와 도큐먼트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으며, 도큐먼트 내에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기계가 추출 가능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러한 시맨틱 웹의 실현은 커뮤니티나 조직 등의 경계를 넘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공유·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기계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토 겐타로(伊藤健太郎), 사토 유우키(佐藤勇紀), 하마자키 스구루(濱崎俊) 공저, 정재은, 이인근, 황도삼 공역, 최기선 감수, 『시맨틱 웹』, 두양사, 2015, 31~32쪽.

36) 김사현, 「문화유적 안내 정보 모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7) 김하영, 「門中古文書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아카이브 구축이 대학의 인문학 교육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³⁸⁾ 그는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서비스하는 문중 고문서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면서 데이터의 범주와 데이터 개체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데이터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관계의 발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별적인 사실만을 바라볼 때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 사실들이 서로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들을 드러내는 순간, 그 관계와 관계의 연장은 스토리가 되고, 학술적인 지식일 뿐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의 자원이 된다.”는 설명은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한 물리적 자원을 디지털 환경으로 옮긴 공간을 넘어 소장한 자원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허경진, 구지현(2016)은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臚錄)』, 『조선왕조실록』, 『변례집요(邊例集要)』를 기초 자료로 삼아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온톨로지를 설계하였으며 관계 정보 시각화·공간 정보 시각화·시간 정보 시각화·파노라마 구축·위키 편찬 등 실제 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제시하였다.³⁹⁾

김바로(2017)는 근대 학교 자료를 대상으로 구한말 관공립학교의 제도와 교원의 인사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온톨로지를 설계하였으며, 구축된 제도-인사 아카이브가 활용될 수 있는 시각화 방법론과 디지털인문학 연구 모델을 제시하였다.⁴⁰⁾ 그는 『구한말 관보』, 『직원록 자료』, 『한국근현대인물자료』와 같은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학교(관립학교, 공립학교)와 제도(직위, 직급, 직봉), 인사운영 용어에 대한 전통적인 고증과 함께 고증한 결과물을 ‘학술’, ‘제도’, ‘사건’ 등으로 개념화된 틀로 분류하여 기계가독형 데이터로 추출하였다. 또한 온톨로지 설계를 위해 기존 종이 공구서 및 기존 디지털 사전과 디지털 아카이브 제도 정보 구현 방식 비교하였으며, 설계된 온톨로지를 바탕으로 시맨틱 웹으로 구현할 수 있는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⁴¹⁾ 데이터 모델과 기존 디지털 아카이브에 사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XML 데이터를 각기 모델로 제시하였다.

이재욱(2017)은 조선시대 과거 합격자 명단인 ‘방목(榜目)’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방목자료 뿐 아니라 족보 자료에서 얻은 정보까지

38)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39) 허경진, 구지현,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연구일지』, 보고서, 2016.

40) 김바로, 「제도와 인사의 관계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근대 학교 자료(1895~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41) RDF란 그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웹의 리소스를 표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리소스란 웹에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사물을 가리키며, 보다 형식적으로는 URL(Universal Resource Identifier)에 의해 식별 가능한 모든 것이 리소스이자 RDF로 표현하는 대상이 된다. 이들 리소스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와 표현 방식을 정한 것이 RDF이다. 이토 겐타로 외, 앞의 책, 2015, 89쪽.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통계분석, 질의에 의한 추론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인적 관계망 온톨로지’라는 이름으로 설계하여 제시하였다.⁴²⁾ 그는 설계된 온톨로지에 따라 구현된 데이터베이스에 ‘문과방목 출현 인물 데이터’와 ‘만가보(萬家譜) 출현 인물 데이터’, ‘사가족보(私家族譜) 출현 인물 데이터’를 적재하고 이로부터 인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군집을 도출하였으며, 여기서 도출된 인적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조선시대 지배 엘리트인 문과 급제자 상당수가 어떤 관계로든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김현, 안승준, 류인태(2018)는 한국고문서자료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안 김씨 고문서 자료 가운데 고신, 호적, 소지, 입안, 토지매매명문, 배지, 분재기 7종 17편의 고문서에 담긴 정보와 『부안김씨족보』(우반동 지평공파보)에 수록된 인물 정보를 데이터로 정리하고 연결하였다.⁴³⁾ 해당 고문서와 문헌자료를 통해 문서와 문서 사이의 관계 및 문서 안에 담신 인물, 노비, 물품 등의 다양한 정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Neo4j 그래프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질의어를 구성해 데이터를 출력하여 고문서 가운데 발견되는 개별 정보 요소의 연계 양상과 이것을 기반으로 지식을 확장해나갈 수 있음을 조망하였다.

김지선(2019)은 ‘여향전기집(閭巷傳記集)’ 자료를 기초로 『호산외사(壺山外史)』,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희조일사(熙朝軼事)』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문헌에 수록된 여러 인물들의 가문, 소속 관서, 시사(時社), 인물이 언급된 문헌 등을 온톨로지 설계하고, Neo4j 그래프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시맨틱 웹을 구축하였다.⁴⁴⁾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여향인’으로 지칭되는 집단 속 인물 간의 관계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유의미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탐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류인태(2019)는 17세기 말 호남에 거주했던 양반 윤이후(尹爾厚)의 『지암일기(支菴日記)』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양반이 일상에서 경험했던 다채로운 생활 양상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로 추출하고 이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편찬하였다.⁴⁵⁾ 그는 이렇게 편찬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맥락의 데이터 시각화를 시도하였으며 윤이후가 실제로 영위했던 생활의 여러 양상을 디지털 환경에서 재현하고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편찬을 위한 인문학 자료 대상의 온톨로지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추출한 시맨틱 데이터를 XML⁴⁶⁾, Wiki DB, RDB,

42) 이재욱, 「조선시대 科擧 合格者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 관계망 구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43) 김현, 안승준, 류인태,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 방법의 모색: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횡단인문학』 창간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17~61쪽.

44) 김지선, 「19세기 여향전기집 수록 인물 관계망 구현 및 분석 연구 -『호산외사』, 『이향견문록』, 『희조일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45) 류인태,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베이스 편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46) XML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칭이다. 마크업 언어의 정의를 위한 언어이며, 메타 언어이므로 HTML과 같이 용도가 한정되지 않고, 용도에 따라 자유로이 포맷을

그래프데이터베이스, LOD⁴⁷⁾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김광우(2019)는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다각적 조망을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의 예술가이자 흥행 사업가인 이철(李哲, 1903~1944)을 대상으로 한 온톨로지 설계와 그의 생애를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시각화(Semantic Database Visualization)’ 기술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⁴⁸⁾ 그는 이철의 생애 가운데 일제강점기라는 특수성을 포괄하여 조망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맥락을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큐레이션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를 통해 구축된 모델은 인물의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확장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하는 관련 연구자의 협업과 대중적인 콘텐츠 개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제시하였다.

3) 디지털 콘텐츠 검토

(추후 작성) 조선왕실과 연관된 주제를 대상 자료로 삼은 디지털 콘텐츠 리뷰 및 데이터베이스 구현 전략 서술

-대상 :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DB,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태실 문화재 정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태실 관련 기사,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 누리집, 디지털 장서각,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디지털 승정원일기, 한국고전종합DB, 문화콘텐츠닷컴 태실 관련 콘텐츠, 한국기록유산 Encyves Wiki, 실록 Wiki.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마크업에 의해 데이터는 구조화되고 나서 기술된다. XML로 기술된 데이터는 ‘XML 도큐먼트’라 불리며 텍스트 형식이므로 타 플랫폼과의 데이터 교환이 용이하고, 특별한 어플리케이션이 없더라도 바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에디터만으로 가볍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XML은 널리 보급되어 대부분 분야의 데이터 교환이 XML을 이용하고 있다. 이토 겐타로 외, 앞의 책, 2015, 61쪽.

47) LOD는 연결된 데이터(Linked Data)와 개방된 데이터(Open Data)의 합성어이다. 즉 웹 상에서 연결되고 개방된 데이터를 말하는데 먼저, ‘연결된 데이터’는 웹 상에서 여러 데이터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데이터를 말한다. ‘개방된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 자원을 LOD로 발행하는 것은 정보가 웹 상에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 기술된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기계적인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로 존재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병하, 김택훈, 박진호, 오원석, 이명진 공저, 『알기 쉬운 Linked Open Data』,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자원활용부, 2015, 12쪽; 김현규, 「3·1운동에 관한 개방적 연계 데이터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9~30쪽.

48) 김광우,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II. 조선왕실 태실의 역사적 전개

이 장에서는 조선왕실 태실이라는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선시대 각 왕대별 태실의 조성과정과 그 제도적 추이를 연구대상 기초자료로 삼은 문헌자료를 통해 개괄하고 일제강점기 서삼릉으로 태실이 이관되는 과정까지 살펴볼 것이다.

조선왕실에서는 태어난 아기씨(阿只氏)의 태를 길지에 안태하고 태실을 만들었다.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태의 주인이 장수하고 지혜로울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⁴⁹⁾ 왕위를 계승할 원자(元子)와 원손(元孫)의 태실은 길지 가운데 가장 훌륭하다 여겨진 1등지(一等地)에 태실을 만들었고 태실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면 가봉이라는 절차를 통해 태실에 석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태실을 조성할 때와 이후 가봉할 때 모두 땅을 주관하는 신과 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태실의 석물이 파손되면 일정한 법식에 따라 수개하였고 이는 후대에도 이어졌다.

왕실의 자녀들의 태를 묻은 지역은 백성들이 거주하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태실을 조성하고 수호하기 위해 지역 백성들을 동원하였기에 태실 조성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영조(英祖, 1694~1776)는 이를 개선할 방도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정조(正祖, 1752~1800)에 의해 실천되었다.

서삼릉 태실 집안지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후반부터 1934년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왕실 태실이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온전히 보존한다는 명분에 의해 조성되었다. ‘길지’라는 역사경관적 맥락이 매우 중시되었던 태실과 태항아리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조선왕실 태실이 지녔던 본래의 역사적 의미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 조선 전기 태실의 조성과정과 제도의 확립

조선 전기부터 나라에서는 태실을 조성할 때 예조(禮曹)의 주도로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하여 역사(役事)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⁵⁰⁾ 태실 조성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던 전통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확인이 되는데,⁵¹⁾ 조선시대는 태실 조성을 이전 시대보다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면서 발전적 양태로 계승해나간 것이 주목된다.

49) 『世宗實錄』 18년(1436) 8월 8일 辛未, “陰陽學鄭秧上書曰 唐 一行所撰六安胎之法 有曰 人生之始 因胎而長 況其賢愚盛衰 皆在於胎者乎 是故男子十五年而藏胎 皆待其志學遵嫁之年也 男值好地 聰明好學 官高無疾 女值好地 嬋妍端正 得人欽仰 惟藏不過度 乃獲徵祥 其好地 皆端正突起 上接雲霄爲吉地 又觀王岳之書 待滿三月 選高靜處埋之 可以長壽有智 以此觀之 嗣王之胎 俟其即位而安之 有戾於古人安胎之法 乞依一行 王岳藏胎之法 擇吉地以安之 預養壽福.”

50) 『世宗實錄』 즉위년(1418) 8월 14일 辛卯, “禮曹啓 今將涓吉朔安胎 請依前例 立胎室都監 擇吉地 從之.”

51) 심현용, 「高麗時代 胎室에 관한 考古學的 試論」, 『江原史學』 제27권, 2015, 70~73쪽.

1392년 태조(太祖, 1335~1408)는 장차 개경(開京)을 떠나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태를 기존에 봉안해두었던 영흥(永興) 준원전(濬源殿) 연못⁵²⁾⁵³⁾⁵⁴⁾에서 양광·경상·전라 일대의 삼남지방으로 이안하여 태실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권중화(權仲和)를 보내어 안태지를 찾도록 한 것이 조선시대 태실 조성의 시초이다.⁵⁵⁾ 이듬해 태조는 권중화(權仲和)를 태실증고사(胎室證考使)⁵⁶⁾로 임명하여 태실을 조성할만한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새 도읍지로 삼을만한 후보지를 찾도록 명하였다.⁵⁷⁾ 권중화는 태실을 조성할 길지를 전라도 진동현(珍同縣)으로 보고하였으며 태조는 곧바로 이곳에 태실을 조성하였다. 태조는 태실을 조성하면서 과거 고려시대 태실이 조성된 고을의 읍격을 승격시킨 사례⁵⁸⁾를 좇아 진동현을 진주(珍州)로 개칭하였다.⁵⁹⁾

태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종(定宗, 1357~1398)과 태종(太宗, 1367~1422)은 태조의 선례를 좇아 태조의 옛 저택이었던 경흥전(慶興殿)에 봉안해두었던 태를 이안하여 태실을 조성하였다.

정종은 1399년 민제(閔霽)를 충청·전라·경상 삼남지방으로 보내 안태할 땅을 물색하게 하였다.⁶⁰⁾ 같은 해 조진(趙珍)으로 하여금 경상도 금산현(金山縣)에 태실을 조성하도록 명하였으며, 금산현을 금산군(金山郡)으로 승격시키는 조취를 취하였다.⁶¹⁾ 정종 태실이 조성된 황악산(黃嶽山)에는 직지사(直指寺)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태실 수호사찰로 지정되면서 노비와 전답을 하사받았다.⁶²⁾

52) 『北道陵殿誌』, 「濬源殿」, “初僧無學住薪寺 在殿基西南五里許 一日望氣來告桓祖曰 公將生貴子及至 太祖誕生時來 納米藿醬三種曰 王者必生須善保養云 殿基舊有龍淵 太祖誕降初藏御胎 於淵中後填其淵 本殿錄曰 填淵時 胎缸則移奉 於全羅道珍山郡萬勿山.”

53) 『林下筆記』 卷31, 「旬一編」, “國初 圖寫太祖眸容二本 分奉于慶基殿濬源殿 兩本最久也 濬源殿基址 本沮洳之池 無學見桓祖曰 孕貴子 某日我當來 乙亥十月十一日復來 見太祖誕生 取其胎缸藏于池 名之曰瑤樂 太祖四歲有詩曰 瑤樂池中舊日龍 變化將爲沛澤龍者 是也後填其池 建濬源殿.”

54) 각주52과 53의 기록은 100년의 간격을 두고 기술되어 각각 태조의 태향아리를 묻었던 연못을 ‘용연(龍淵)’과 ‘요락지(瑤樂池)’라고 부르고 있다. 각각의 명칭이 명명(命名)된 시기는 조선후기로 추정되는데 이에 관련한 이야기는 V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55) 『太祖實錄』 1년(1392) 11월 27일 甲辰, “遣政堂文學權仲和于楊廣 慶尙 全羅道 相安胎之地.”

56) 태실증고사는 태실 조성에 적합한 태실지를 찾기 위해 지방에 파견되는 임시 관원이다. 조선전기에는 태실증고사 파견이 이루어졌으나, 조선후기에는 관상감(觀象監)의 관원인 상지관(相地官)이 태실지로 적합한 땅을 찾는 업무를 맡으면서 태실증고사 제도 또한 사라졌다.

57) 『太祖實錄』 2년(1393) 1월 2일 戊申, “胎室證考使權仲和還 上言 全羅道 珍同縣 相得吉地 乃獻山水形勢圖 兼獻楊廣道 雞龍山都邑地圖.”

58) 『高麗史』 世家 明宗 2년(1172) 6월 25일 壬戌, “左承宣李俊儀奏 諸州任內五十三縣 各置監務 安東任內甫州 以太子胎藏 陞爲縣令 固城縣加置尉一員 王命群臣議之 以俊儀勢位既重 性且猜險 莫敢是非.”

59) 『太祖實錄』 2년(1393) 1월 7일 癸丑, “遣三司左僕射權仲和 安胎室于完山府 珍同縣 陞其縣爲珍州.”

60) 『定宗實錄』 1년(1399) 1월 19일 庚寅, “遣驪興伯 閔霽于忠淸 全羅 慶尙道 證考安胎之地.”

61) 『定宗實錄』 1년(1399) 4월 5일 乙巳, “遣中樞院使 趙珍 安胎于金山縣 陞金山爲郡.”

태종은 1401년 하륜(河崙)을 태실증고사로 삼아 장차 안태할 땅을 찾도록 하였다.⁶³⁾ 같은 해 9월 민제를 안태사(安胎使)⁶⁴⁾로 삼아 보냈으며,⁶⁵⁾ 10월 경상도 경산부(京山府) 조곡산(祖谷山)에 태실을 조성하였다. 이때 태실을 수호인(守護人) 10호(戶)를 정하였으며, 경산부를 성주목(星州牧)으로 승격토록 하였다.⁶⁶⁾⁶⁷⁾

세종(世宗, 1397~1450)은 즉위년(1418)에 곧바로 예조의 청을 따라 태실도감을 설치하였다.⁶⁸⁾ 이때 태실증고사로는 정이오(鄭以吾)를 임명하였으며,⁶⁹⁾ 10월 안태지 후보로 진주(晉州) 곤명현(昆明縣)이 보고되었다.⁷⁰⁾ 안태지 후보로 보고된 곤명현은 별다른 이견 없이 낙점된 것으로 보이며, 태실도감에서는 본격적인 태실 조성에 앞서 태실을 지킬 관원 배치와 수호인을 둘 것을 청하는 등⁷¹⁾ 태실 보호 제도의 정비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이때 상왕으로 있던 태종은 전교를 내려 돌난간(石欄)을 설치하면 땅을 파헤쳐 지맥(地脈)을 손상시키니 나무로 난간을 만들어 이것이 썩거든 다시 만드는 것을 법식으로 삼고자 하였던 점이 주목된다.⁷²⁾ 그러나 이후 조성된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와 문종(文宗, 1414~1452)의 태실에서 다시 석난간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⁷³⁾ 태종의 전교는 세종 태실 조성 당시에만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태실의 안태사는 3차례에 걸쳐 후보자가 변경되었다. 처음 안태사로 지목된 유정현(柳廷顯, 1355~1426)은 당시 의금부제조(義禁府提調)로 있었는데, 권홍(權弘)이 태종에게 형관(刑官)이 안태사를 맡게 되면 업무를 실행할 수 없음을 들어 한상경(韓尙敬, 1360~1423)이 안태사를 대신하도록 명하였다.⁷⁴⁾ 하지만 실제 태를 받들어 곤명으로 향한 것은 권규(權珪)로⁷⁵⁾ 한상경 또한 안태사의 업무를 행할

62) 『金山直指寺重記』, “大明建文元年 本朝 恭靖大王 元年 乙卯 安御胎于寺之北峰 升縣爲郡 亦賜田結奴婢.”; 한국학중앙연구원, 『直指寺誌』, 아세아문화사, 1980, 130쪽.

63) 『太宗實錄』 1년(1401) 7월 23일 庚戌, “以領司平府事河崙爲胎室證考使 上錢之于清和亭 賜崙馬二匹 鞍一部 衣一襲 仍賜相地人尹莘達馬一匹 衣一襲.”

64) 안태사는 주로 2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었으며, 종사관(從事官)·배태관(陪胎官)·서표관(書標官)·전향관(傳香官)·주시관(奏時官)·감역관(監役官) 등 중앙에서 파견되는 여러 관원들을 대동해 태실을 조성할 터로 나아가 태실 조성이 모두 끝날 때까지 각종 업무를 총괄하던 임시 관원이다.

65) 『太宗實錄』 1년(1401) 9월 24일 庚戌, “以驪興府院君 閔霽爲安胎使.”

66) 『太宗實錄』 1년(1401) 10월 8일 癸亥, “安胎于京山府 祖谷山 閔霽詣咸州 奉胎函以至京山府 定胎室侍衛品官四員及守護人十戶.”

6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28, 「慶尙道」 星州牧, “太宗朝 安御胎 于府之祖谷山 陞爲牧.”

68) 각주49 참조.

69) 『世宗實錄』 즉위년(1418) 8월 29일 丙午, “以前大提學鄭以吾爲胎室證考使 賜毛冠及靴藥.”

70) 『世宗實錄』 즉위년(1418) 10월 25일 辛丑, “胎室證考使鄭以吾來自晉陽 獻胎室山圖 山在晉州屬縣昆明.”

71) 『世宗實錄』 즉위년(1418) 11월 1일 丁未, “胎室都監請置晉州胎室侍衛品官八人 守護干八人 上王從之.”

72) 『世宗實錄』 즉위년(1418) 11월 3일 己酉, “宣旨 胎室石欄之設 掘地損脈 今晉州胎室 毋設石欄 只用木爲欄 朽則改之 以爲恒式.”

73) 『世祖實錄』 9년(1463) 3월 4일 癸巳, “禮曹啓 古順興 昭憲王后胎室 古殷豐 文宗大王胎室 石欄干及磚石差退 請遣風水學官奉審修葺.”

74) 『世宗實錄』 즉위년(1418) 11월 5일 辛亥, “判漢城權弘啓上王曰 今以領敦寧柳廷顯爲安胎使 廷顯職兼義禁府 不可以刑官將事 上王曰 然 其以西原府院君 韓尙敬代之.”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419년 태실 조성이 갈무리되자 남해현(南海縣)과 곤명현이 합쳐져 곤남군(昆南郡)으로 승격되었다.⁷⁶⁾⁷⁷⁾

세종대는 태실의 여러 제도적 실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확인되는 사례로는 태실 조성 후 3년마다 한 차례씩 제사를 올리는 태실안위제(胎室安慰祭)의 폐지,⁷⁸⁾ 태실 수호인의 거소(居所) 제한 및 3년에 한번 씩 태실의 잡목 제초(除草) 규정 제정,⁷⁹⁾ 왕비 태실, 성주 선석산(禪石山) 왕자 태실군(胎室群) 조성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왕비 태실 조성은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의 태를 옮기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본래 양주(楊州) 동면(東面)에 갈무리 되어있었는데,⁸⁰⁾ 이를 경상도 순흥으로 옮겨⁸¹⁾ 가봉태실을 조성하도록 하였다.⁸²⁾ 소헌왕후 가봉태실의 출현은 이후 세조대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의 태실과 성종대 폐비 윤씨(廢妃尹氏, 1455~1482) 태실이 조성되는 선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주 선석산의 세종 왕자 태실군은 왕세자(王世子)로 있던 문종을 제외한 18왕자의 태실을 1438년부터 1442년까지 한 공간에 조성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왕과 세자의 태실만을 조성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그 범위를 넓혀 다른 왕실 구성원들의 태실을 조성한 것은 이후 많은 왕자·왕녀 태실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⁸³⁾ 또한 태실이 풍수와 길지에 좌우되어 이를 절대적으로 신봉하지 않고 백성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했던, ‘동강동태(同岡同胎)’의 최초 사례이기에, 이후 영조대에 세종 왕자 태실군은 태실 제도 개혁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⁸⁴⁾

문종 태실의 조성은 1439년 1월 장태개기사(藏胎開基使) 이순몽(李順蒙)을 경상도

75) 『世宗實錄』 즉위년(1418) 11월 11일 丁巳, “吉昌君 權珪自留後司奉御胎向晉州 昆明縣 賜毛衣 毛冠.”

76) 『世宗實錄』 1년(1419) 3월 27일 辛未, “以晉州屬縣昆明 合於南海縣 陞爲昆南郡.”

77) 윤진영은 여말선초에 출생 직후 태를 임시로 안치해두는 ‘가안태(假安胎)’의 전통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여, 세종 태실의 조성이 조선시대 정상적인 태실 조성의 첫 사례로 보았다. 심현용은 태조·정종·태종·세종은 민간의 매태 풍습에 따라 태를 묻어두었다가 왕이 된 후 처음으로 가봉태실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아기태실에서 가봉태실로 이어지는 첫 사례를 세종 태실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세종의 왕자들의 태실인 성주 선석산 태실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조성된 조선시대 태실의 첫 사례로 보았다. 윤진영, 「조선 후기 安胎儀禮의 개선과 정비」, 『朝鮮時代史學報』, 제67집, 2013, 369~397쪽; 심현용, 앞의 논문, 2015, 55~56쪽, 각주195 참조.

78) 『世宗實錄』 3년(1421) 10월 10일 己亥, “命除胎室安慰祭 前此 安胎後 每三年一次行祭 謂之胎室安慰祭 至是 禮曹令書雲觀稽舊例 太祖 恭靖王安胎後 竝不行安慰祭 乃命罷之.”

79) 『世宗實錄』 18년(1436) 7월 20일 癸丑, “令諸胎室守護軍 依諸陵室例 禁限外捨居 三年一次遣官巡審 拔去雜木.”

80) 『世宗實錄』 20년(1438) 1월 20일 乙巳, “中宮胎藏於楊州東面間閭之間 命擇吉地移藏.”

81) 『世宗實錄』 20년(1438) 5월 15일 戊戌, “藏中宮胎于慶尙道 順興府 中輪寺洞.”

82) 소헌왕후의 태실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심현용, 「조선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구성과 구조 복원」, 『嶺南考古學』, 제68집, 2014; 홍성익, 「조선전기王妃 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제117호, 2015.

83)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별고을 성주, 생명을 품다 : 선석산 세종대왕자 태실 이야기』, 성주군, 20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종합적 검토』, 성주군, 2016; 윤진영, 앞의 책, 2020, 68~73쪽.

84) 윤진영, 앞의 책, 2020, 77쪽.

기천(基川)으로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⁸⁵⁾ 2월에 안태사 안순(安純)이 태를 받들어 기천으로 향하였는데⁸⁶⁾ 이때 조성된 문종의 태실은 아기태실로 파악된다. 문종 즉위 후 가봉시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1450년 왕의 태실을 조성한 고을의 읍격을 높이던 선례에 따라 기천 은풍현(殷豐縣)을 군(郡)으로 승격토록 하는 의논이 있었으며,⁸⁷⁾ 곧 이어 은풍현을 풍기군(豐基郡)으로 개칭하였음을 볼 때,⁸⁸⁾ 가봉 또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단종(端宗, 1441~1457)의 태실 조성은 정확한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1443년 이미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것⁸⁹⁾을 통해 출생 직후 얼마 있지 않아 조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단종 태실은 원손 태실로 성주 선석산의 세종 왕자 태실군과 함께 위치하고 있었다. 문종 즉위 후 풍수학(風水學)에서 단종의 태실을 옮길 것을 주청하였으며,⁹⁰⁾ 이듬해(1451) 허후(許詡, ?~1453)를 안태사로 삼아 성주 가야산(伽倻山)에 새로이 태실을 조성한 뒤 사방으로 금표(禁標)를 세우고 수호인을 정하였다.⁹¹⁾ 단종 태실은 1452~1455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가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⁹²⁾ 1458년 철거되었다.⁹³⁾ 단종 태실의 철거로 성주 소재 단종 태실은 존재가 잊혀졌으나, 이후 영조대 곤명에 위치한 인성대군(仁城大君, 1461~1463)의 태실이 단종의 태실로 오인되면서 이를 왕의 태실로 가봉하고 수개하는 등의 관리가 이루어졌다.

세조(世祖, 1417~1468)는 세종대 이미 선석산 세종 왕자 태실군에 아기태실이 조성되어 있었으므로 예조에서는 이를 선례에 따라 이안하고 가봉하기를 청하였으나, 세조는 표석(아기태실비)을 없애고 가봉비(加封碑)만을 세워 다른 왕자 태실과 구별하도록 하였다.⁹⁴⁾⁹⁵⁾ 세조 이전의 역대 가봉태실은 현존하는 가봉비가 모두 후대에

85) 『世宗實錄』 21년(1439) 1월 28일 丁未, “東宮藏胎開基使判中樞院使李順蒙往慶尙道 基川.”

86) 『世宗實錄』 21년(1439) 2월 3일 壬子, “安胎使判中樞院事安純奉東宮胎 往慶尙道 基川.”

87) 『文宗實錄』 즉위년(1450) 7월 4일 丙午, “藝文館大提學權孟孫等啓曰 臣等籍鄉慶尙道 基川任內殷豐縣 乃上安胎之處 請陞郡置守 下吏曹議之.”

88) 『文宗實錄』 즉위년(1450) 7월 26일 戊辰, “議政府據吏曹呈啓 慶尙道 基川任內殷豐縣 乃安胎之處 請依昆陽郡例 陞爲郡 以基川縣合屬 號爲豐基郡 從之.”

89) 『世宗實錄』 25년(1443) 12월 11일 辛卯, “初 安元孫胎于慶尙道 星州 其圖局內有長庚墓 乃星原君 李正寧始祖也.”

90) 『文宗實錄』 즉위년(1450) 9월 8일 己酉, “風水學啓 … 今王世子胎室 在星州諸大君胎室之旁 傾側補土之處 誠爲不可 依胎經擇地之法 廣求吉地於京畿下三道 從之.”

91) 『文宗實錄』 1년(1451) 3월 6일 乙巳, “安胎使禮曹判書許詡還啓 今已移安東宮胎室于星州 伽倻山 定其四域 東南各九千六百步 西九千五百九十步 北四百七十步 爲之立標 又定品官 李孝眞等八人 百姓金道者等六人 使之守護.”

92) 현재 단종 태실지가 위치한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산11-1에는 가봉태실의 석물로 사용되었던 연엽주석(蓮葉柱石)·우전석(隅磚石) 등이 확인되며, 2012년 대동문화재연구원 이 지표조사를 통해 단종 태실지의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다. 대동문화재연구원, 『성주 태종·단종태실 학술(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12.

93) 『世祖實錄』 4년(1458) 7월 8일 癸巳, “禮曹啓 星州 禪石山奉安主上胎室 而諸大君 諸君及亂臣瑜胎室雜處其間 且法林山有魯山君胎室 請移諸大君 諸君胎室而撤去瑜及魯山君胎室 從之.”

94) 『世祖實錄』 8년(1462) 9월 14일 乙巳, “先是 禮曹啓 御胎室在星州大君 諸君胎室之旁 且

세워진 것이라 조성 당시 가봉비가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조대 처음으로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갖춘 가봉비의 설치가 문헌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된다. 세조는 태종이 전교를 내렸던 것처럼 향후 태실 조성에 있어 왕은 물론이고 왕세자, 원손의 태실에도 돌난간의 설치를 금하도록 하였는데,⁹⁶⁾ 이후 조성된 태실에서 돌난간이 계속 설치되는 것을 보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종(睿宗, 1450~1469)의 태실 조성은 1462년에 아기태실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⁷⁾ 다만 예종은 자신의 재위기 태실을 가봉하지 않았으며, 예종 태실의 가봉은 1578년에 이루어졌다.⁹⁸⁾⁹⁹⁾

성종(成宗, 1457~1494)의 안태와 가봉시기는 태지석과 가봉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성종의 안태는 1458년으로 확인되며,¹⁰⁰⁾ 즉위 후인 1471년¹⁰¹⁾ 경기도 광주(廣州) 가마령(佳々嶺)에 가봉태실을 조성하였다.¹⁰²⁾ 성종은 태실 조성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던 풍수를 허탄하다며 직접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이전까지 하삼도(下三道) 일대에 태실을 조성하던 것을 가까운 경기 지역에서 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¹⁰³⁾¹⁰⁴⁾ 또한 1493년 권정이 태봉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왕녀의 경우, 특히 옹주의 태는 한 곳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묻자는 논의가 있었다.¹⁰⁵⁾ 앞선 논의들은 일부 수용되는 양상과 수용되지 못하는 양상을 함께 나타냈는데, 먼저 1476년 경기 지역에 태실 조성을 명한 이후에도 성종 자녀

無儀物 請擇地移安 依先王舊例設儀物 不允 只命去標石 立碑以別之 至是立碑。”

95) 세조 태실 가봉비의 명문은 현재 마멸이 심해 판독이 어려우나 『세조실록』과 『태허정집(太虛亭集)』에 그 글이 수록되어있다. 가봉비 명문에 대한 원문·번역·해설은 다음의 논저를 참조.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성주금석문대관』 2, 성주문화원, 2018, 1318~1321쪽.

96) 『世祖實錄』 8년(1462) 8월 22일 甲申, “傳旨禮曹曰 今後御胎及王世子 元孫胎室 竝勿設石欄干.”

97) 『睿宗胎誌石』, 1462, “皇明景泰元年庚午正月初壹日酉時生 王世子冕胎 天順陸年拾月拾伍日丙子癸時藏.”

98) 『睿宗大王胎室碑』, 1578, “萬曆六年十月初二日建.”

99) 전주시, 전주문화원, 『전주시사』, 전주시, 1997, 491~492쪽.

100) 『成宗胎誌石』, 1458, “皇明天順元年七月三十日戌時生 懿敬世子男慶新胎 天順二年三月初一日戊子子時藏.”

101) 『成宗大王胎室碑』, 1823, “成化七年閏九月日立.”

10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京畿」廣州牧, “佳々嶺 在州東四十五里安 成宗御胎.”

103) 『成宗實錄』 7년(1476) 11월 28일 戊辰, “傳曰 前此安胎皆於下三道 其意何也 可問於風水學 風水學啓 無論遠近 期得吉地耳 傳曰 懿旨云 凡人必皆藏胎于家山 比來國家擇地雖精 無大吉應 風水之說 可謂虛誕 其令擇于京畿.”

104) 서울·경기도 내의 성종 자녀 태실은 다음과 같이 6기가 확인된다. 서울 은평구 왕녀 태실(현재 연서중학교 부근), 가평군 중종(中宗, 1488~1544) 태실, 양주시 정혜옹주(貞惠翁主, 1584~1638) 태실(황방리 왕녀 승복 태실), 광주시 공신옹주(恭愼翁主, 1481~1549) 태실(원당리 왕녀 태실), 파주시 영산군(寧山君, 1490~1538) 태실(어유지리 태실), 남양주 봉안군(鳳安君, 1482~1505) 태실(남양주 왕자 수장 태실). 이주환, 이진훈, 조원교 공저, 『朝鮮의 胎室』 I,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48쪽, 141쪽; 이주환, 이진훈, 조원교 공저, 『朝鮮의 胎室』 II,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46쪽, 52쪽, 54쪽, 58쪽, 64쪽, 144쪽, 168쪽, 171쪽, 173쪽, 176쪽 참조.

105) 『成宗實錄』 24년(1493) 10월 10일 辛未, “僉知中樞府事權佺啓曰 江原 黃海等道胎峯 不易多得 臣意以爲 王子君胎外 翁主胎則一處藏之 且於三角山近處擇地藏之爲便 上曰 其問便否于觀象監.”

태실이 지방에 조성되는 사례가 보이는 점이 확인된다.¹⁰⁶⁾ 다만 한 곳에 안태하자는 권정의 논의 이전에 조성된 경북 밀양의 성종 왕녀 태실 2기와¹⁰⁷⁾ 경북 상주의 안양군(安陽君, 1480~1505), 완원군(完原君, 1480~1509) 태실¹⁰⁸⁾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다. 이러한 쌍태실(雙胎室)은 효종대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후대의 태실 조성에 있어 선례로 적용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성종대 태실 조성에 있어 주목되는 사례는 바로 왕녀 태실의 조성이 처음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¹⁰⁹⁾ 또한 세종대 소헌 왕후 태실 조성을 본받아 1476년 왕비로 책봉된 폐비 윤씨 태실을 1478년 가봉하였다.¹¹⁰⁾¹¹¹⁾

연산군(燕山君, 1476~1506) 재위기는 1501년 폐세자 황(廢世子 顓, 1497~1506)의 태실 조성을 위한 안태사로 신수근(愼守勤)이 임명된 기사가 문헌에서 확인된다.¹¹²⁾ 이외에도 연산군 자녀 태실과 관련한 유물이 다수 현존하는 것을 볼 때¹¹³⁾ 연산군대의 태실 조성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종은 1507년 자신의 태실이 위치한 경기 가평현(加平縣)을 올려 군(郡)으로 삼고¹¹⁴⁾ 가봉태실을 조성하였다.¹¹⁵⁾ 또한 성종대 경기 일대 가까운 장소를 안태지로

10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008, 36~37쪽.

107) 이주환 외, 앞의 책(II), 1999, 59쪽.

108) 이주환 외, 앞의 책(II), 1999, 43쪽.

109)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기에 왕녀의 태향아리가 확인된다. 세종의 장녀인 정소공주(貞昭公主, 1412~1424)의 묘를 천장(遷葬)할 때 태향아리 2점이 출토되었다. 이렇게 태를 봉안한 태향아리를 묘에 묻은 것은(並藏) 세종이 왕자 태실을 조성한 143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이다. 다만 정소공주의 태향아리의 사례 외에 성종대 이전 왕녀의 태 관련 기록이 문헌상에 나타나지 않는 점과 왕녀 태실의 출현도 성종대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보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심현용은 성종 이전부터 왕녀 태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았으며, 정소공주의 태향아리 병장 사례는 태실 조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종대부터 왕녀 태실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시기로 파악하였다. 심현용, 앞의 논문, 2015, 60쪽, 각주 224 참조.

110) 『四佳詩集補遺』 卷3, 「詩類」, “戊戌秋九月 居正受中宮胎室證考使兼安胎之命 卜地于醴泉之龍門洞.”

111)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하권 -예천의 문화재』, 예천군, 2005, 172쪽.

112) 『燕山君日記』 7년(1501) 6월 10일 丙戌, “命承旨權柱等 往饒安胎使愼守勤于濟川亭 賜御製詩一絕曰 沈沈暑氣正方深 路隔長安幾海峯 今日使人亭上饒 還愁數月不聞音 守勤以鄭麟仁爲從事官.”

113) 연산군 자녀 태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물로는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태지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연산군 자녀 태지석을 출생년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世子嬪女壽億阿只氏胎誌石』(1491), 『元子金石乙伊阿只氏胎誌石』(1497), 『王子康壽阿只氏胎誌石』(1498), 『翁主福億胎誌石』(1499), 『王女福合胎誌石』(1501), 『王子敦壽阿只氏胎誌石』(1501), 『大君仁壽阿只氏胎誌石』(1501), 『王女靈壽胎誌石』(1502?~?), 『王女貞壽阿只氏胎誌石』(1505), 『王子泰壽阿只氏胎誌石』(1506). 이외에 연산군 자녀 태실과 관련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윤무병, 「廣州 元堂里 胎封」, 『考古美術』 통권56·57호, 한국미술사학회, 1965, 46~47쪽; 최호림, 「朝鮮時代 胎室에 관한 一研究」, 『韓國學論集』, 제7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5, 82쪽; 황수영, 『韓國金石文遺文』, 일지사, 1994, 444쪽, 501쪽; 관동대학교 박물관,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삼척시, 1995, 165쪽, 167쪽, 182쪽; 삼척시지편찬위원회, 『삼척시지』, 삼척시, 1997, 924쪽.

114) 『中宗實錄』 2년(1507) 10월 16일 丙戌, “陞京畿 加平縣爲郡 仍遞縣監柳沔 蓋以主上胎室所在也.”

115) 강원대학교 박물관,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가평군, 1999, 254~256쪽; 가평군사편찬위원회, 『가평군지 2 -내력과 자취』, 가평군, 2006, 421~424쪽.

삼으려고 했던 전교에 이어, 만약 경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하삼도로 가되 태실증고사를 파견하는 등 백성에게 민폐가 가는 일을 줄이고자 태실증고사 파견을 중단했으며, 관상감의 상지관으로 하여금 안태지를 찾도록 하였다.¹¹⁶⁾

인종(仁宗, 1515~1545)은 8개월 간의 짧은 재위로 인해 가봉태실을 조성할 시점을 가질 수 없었다. 인종의 태실은 1521년 아기태실로 처음 조성되었으며¹¹⁷⁾ 안태지는 경상도 영천(永川)이다. 이때 수호사찰로 지정된 곳은 백지사(栢旨寺)라는 절이었으나 1546년 중창되면서 백흥암(百興庵)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재 백흥암은 은해사(銀海寺)의 암자로 속해있다.¹¹⁸⁾

명종(明宗, 1534~1567)은 즉위 후 인종의 가봉태실 조성¹¹⁹⁾과 함께 자신의 태실도 가봉하였다.¹²⁰⁾¹²¹⁾

선조(宣祖, 1552~1608)는 태실 조성을 위해 여러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며 길지를 택정하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 선조는 즉위 후 선례를 따라 가봉태실을 조성하자는 조정의 논의를 받아들여 잠저(潛邸)인 도정궁(都正宮) 후원 북쪽 송림(松林)에 묻어두었던 태를 장차 강원도 춘천으로 이안해 태실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해당 안태지가 이미 예전에 태를 묻었던 장소로 판명되어 황해도 강음(江陰)에 다시금 태실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공사를 하던 중, 작은 항아리가 발견되자 이전 태실을 썼던 자리가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어 1570년 송기수(宋麒壽, 1507 ~ 1581)를 안태사로 삼아¹²²⁾ 충청도 임천(林川)에 최종적으로 가봉태실 조성하였다.¹²³⁾

이렇게 선조의 안태지가 여러 차례 변경된 이유는 정결한 땅을 쓰지 않으면 지기(地氣)와 감응할 수 없다는 풍수적 관념에 기인하는 것이었다.¹²⁴⁾ 당시 사관(史官)은

116) 『中宗實錄』 12년(1517) 11월 23일 乙未, “傳于政院曰 封胎地 可先於東 西門外擇地 門外無可當地 則或一日程 或二日程 無過一二日程 凡喪葬擇地 猶不必求之於遠 況此事乎 不必爲遣於下三道也 且胎封之地 凡田地陳荒 亦有畿限 而民不之知 或多騷擾 此亦弊之大者 可先定其界也 且若於京畿無可當之地 則雖擇於下三道 不必遣證考使也 相地官 擇不泛濫者 遣之 與其道監司同巡 一時擇地 可也.”

117) 『仁宗胎誌石』, 1521, “皇明正德十年二月二十五日戌時生 世子皓胎 正德十六年正月十七日午時藏.”

118) 탁효정,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은행나무, 2017, 191쪽.

119) 『仁宗大王胎室碑』, 1546, “嘉靖二十五年五月日建.”

120) 『主上殿下胎室碑』, 1546,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

12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忠南地域의 文化遺跡 13 -瑞山市篇』, 2001, 470~471쪽.

122) 『秋坡集』, 「秋坡先生年譜」, “庚午 公六十四歲 … 九月 差安胎使 十月十四日 奉安宣祖胎函于林川.”

123) 『宣祖修正實錄』 3년(1570) 2월 1일 己亥, “藏聖胎于林川 上初卽位 朝議欲依舊例 擇藏聖胎 求于潛邸 得之園北松林間 乃卜地于江原道 春川地 功役垂畢 審其穴 乃古藏地 乃移卜黃海之江陰 開基之際 去正穴數十步 得舊埋小壘 觀察使具思孟曰 此非正穴 不可只以曾埋小壘 輕撤大役 置而不聞 役又垂畢 朝廷流聞之大驚 憲府劾思孟不敬罷之 大臣建請更擇潔淨之地 乃擇藏于林川.”

124) 태실 조성에 있어 풍수적 관념이 중시되는 등, 길지 택정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 기원은 밀교(密敎)의 택지법(擇地法)과도 일정한 연관을 지니고 있으리라 추정된다. 밀교에서는 제불보살(諸佛菩薩)과 제중선신(諸衆善神)의 수호하는 바가 있어 수행성취가 가능한 곳을 길지·승지(勝地)로 보아 이러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을 택지법이라 일컬었다. 특히 택지법 가

흥년임에도 세 고을에 민폐를 끼치고 풍수를 따져보아도 근거가 없음을 들어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는 기록을 남겼으며,¹²⁵⁾ 이이(李珣, 1536~1584) 또한 안태지로 정할 수 있는 산은 한계가 있는데 태실 조성이 지속될수록 그 폐단이 클 것임을 지적하는 등 태실 제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¹²⁶⁾

2. 조선 후기 태실 제도의 추이

(추후작성) 광해군 ~ 고종대까지의 태실 조성 과정과 제도적 추이를 서술, 영조의 동강동태론(同岡同胎論) 및 어원(御苑) 태실 조성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태실 제도의 규칙재정 논의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함.

3. 일제강점기 서삼릉 태실의 조성

(추후작성) 장서각 소장 『태봉(胎封)』을 통한 서삼릉 태실 조성 과정과 태실의 역사경관적 의미 상실을 서술.

운데 관지상법(觀地相法)은 지형(地形)이 갖추고 있는 외적인 조건, 곧 산천국토의 지세(地勢)·유형(流形)·수목(樹木)·유수(流水) 등등 지상(地相)을 관찰하여 길지와 흉지(凶地)를 판별하였는데, 이는 풍수의 정혈(定穴)과 매우 유사한 논리를 취하고 있다. 또 『유희야경(蕤呬野經)』, 『건립만다라급간택지법(建立曼荼羅及揀擇地法)』, 『범천택지법(梵天擇地法)』 등에서 길지를 선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평정한 땅(平正地)·높은 산 위(高山上)·산꼭대기(山頂上)·높은 산꼭대기(高山頂上)·산속에 평평한 땅이 있되 풀이 없는 곳(山中有平處無草地) 등은 태실이 조성된 지형적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일자불정륜왕경(一字佛頂輪王經)』에 길지에 차등을 두어 상지(上地)·중지(中地)·하지(下地)와 같은 3품등지(三品等地)로 나눈 사례는 원자·왕자·왕녀의 태실지에 등급을 나눈 점과도 유사한 지점을 보여 풍수로 수용된 밀교적 관념이 태실의 길지 택정에 있어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서운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231~253쪽.

125) 『宣祖修正實錄』 3년(1570) 2월 1일 己亥, “時 百姓飢饉 勞於運石 一藏聖胎 害徧三道 識者歎惋 胎經之說 肇於羅麗之間 非中朝古方也 我國之規 國葬擇吉 則務求吉地 至於盡拔士民墳塋而卜穴 胎封則必欲極擇淨地如此 非惟義理乖舛 揆諸堪輿方術 亦無據矣.”

126) 『大東野乘』, 「石潭日記」 隆慶四年庚午, “人君崇高已極 故人臣不以承奉爲敬 以責難爲恭 當凶荒生民塗炭之際 大臣臺諫不汲汲於匡上救民 而惑於胎經之說 屢移聖胎 竭三道民力 而莫之恤 謂之何哉 山陵卜兆 重於藏胎 而猶不避古藏 至於掘人墳墓 而藏胎獨避古藏何歟 且國內峰巒 只有此數 歷世無窮 藏胎不可再用 則抑求之境外乎 其非可繼之道明矣.”

Ⅲ. 조선왕실 태실 데이터 수집 및 정리

1. 문헌 자료 데이터

조선왕실 태실 문헌 자료 데이터는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조선왕조실록과 디지털 승정원일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에서 태실과 관련된 문헌 내 원문 및 번역문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추출을 위한 검색 키워드로는 ‘胎’, ‘胎室’, ‘安胎’, ‘藏胎’, ‘胎封’, ‘胎峰’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검색을 통해 도출된 문헌 내 기사들은 태실 조성, 태실증고사·안태사 파견, 태실 수개, 태실 작변(作變), 안태의례 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연구 데이터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관이 있다. 데이터 정리시 분류 기준은 문헌명, 분류, 원문, 번역문, 연월일시, 대상, URL로 구분하였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다.

문헌명	태조실록
분류	조선왕조실록
원문	遣政堂文學權仲和于楊廣、慶尙、全羅道，相安胎之地。
번역문	정당 문학(政堂文學) 권중화(權仲和)를 보내어 양광도(楊廣道)·경상도·전라도에서 안태(安胎) 할 땅을 잡게 하였다.
연월일시	태조 1년(1392) 11월 27일 갑진(甲辰)
대상	태조 태실(太祖 胎室)
URL	http://sillok.history.go.kr/id/kaa_10111027_003

표 Ⅲ-1. 문헌 자료 데이터 정리 예시

2. 인물 데이터

조선왕실 태실 인물 데이터는 앞서 서술한 문헌 자료 데이터에서 태실과 연관된 인물을 찾아내어 이를 정리하였다. 또 해당 인물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 중인 인물 관련 기사를 참조하였다.

인명	태조(太祖)
신분	국왕
생몰년도	1393.01.07
대상	태조 태실(太祖 胎室)
근거문헌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고대일록/ 덕계집/ 임하필기/ 복도능전지
URL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033

표 Ⅲ-2. 인물 자료 데이터 정리 예시

3. 장소 데이터

조선왕실 태실 장소 데이터는 초안지와 서삼릉 태실 이안지로 안태지가 나뉘어져 있고, 상세주소 및 위도·경도 등 좌표가 분명하지 않은 점 때문에 온라인만으로 정보를 추출하기에 한계가 있어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초안지의 주소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경우 이를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상세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을 취하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초안지의 주소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각 고을의 지방지(地方誌) 자료나 조선시대 지도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와 대조하여 초안지를 특정하였다. 위도·경도 좌표는 해당 초안지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답사지에 소재한 태봉을 직접 등반하였다. 수집방법은 카메라에 내장된 UTC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태실명	태조 태실(太祖 胎室)
피안자	태조(太祖)
초안지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4
이안지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02 서삼릉 태실
초안지 근거문헌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숙종실록/ 영조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고대일록/ 덕계집/ 임하필기
이안지 근거문헌	태봉
초안지 위도	36°19'47.38"N
초안지 경도	127°45'26.68"E
이안지 위도	37°66'45.61"N
이안지 경도	126°86'06.29"E

표 III-3. 장소 데이터 정리 예시

4. 사진·영상 자료 데이터

조선왕실 태실 사진·영상 자료 데이터는 장소 데이터의 수집과 동일하게 현장 답사를 통해 촬영을 진행하였다. 답사 목적지에 도착하면 먼저 안태지의 전경을 지상 스틸 이미지와 드론을 통해 촬영한 공중 스틸 이미지 촬영을 진행하였다. 그 뒤 해당 안태지가 소재한 태봉 정상부로 향하면서 주변에 태실 관련 석물이나 흔적이 확인될 경우 이를 스틸 이미지로 촬영하였다. 태봉 정상부에 도착하면 앞서 행한 스틸 이미지 촬영과 함께 파빌리온(Pavilion)¹²⁷⁾ 구축을 위한 360° 촬영을 지상·공중 모

127) 김현은 다양한 모노미디어에 대해 ‘맺어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문맥 구현자(Context Builder)’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문맥 구현자를 중심으로 사진, 동영상, 파노라마 영상, 음향, 텍스트 등 다양한 모노미디어 데이터가 패키지로 엮여져서 ‘이야기(Story, 관계에 대한 이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파빌리온’이라 명명하였으며, 해당

두 진행하였다. 촬영결과물은 파일질라(FileZilla) 서버¹²⁸⁾에 식별자를 포함한 네이밍 기준을 설정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위키 문서 내에 갤러리를 만들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명	OGPC_Taejo_Left_Pano_View.JPG
식별자	PC001
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1-86
설명	금산 만인산 태조 가봉태실 전경
URL	http://dh.aks.ac.kr/seosamneung/images/1/1c/OGPC_Taejo_Left_Pano_View.JPG

표 III-4. 사진 데이터 정리 예시

영상명	PC001.htm
식별자	PC001
장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1-86
설명	금산 태조 가봉태실 상공 높은 고도
URL	http://dh.aks.ac.kr/~ssn/pavilion/Field_PC/PC001/PC001.htm

표 III-5. 영상 데이터 정리 예시

5. 메타데이터 정리

01. 태조 태실(太祖 胎室)			
식별자	PC001	한글명	태조 태실
영문명	Placenta Chamber of King Taejo	한자명	太祖 胎室
피안자 명칭	태조(太祖)	피안자 이칭	이성계(李成桂)
피안자 부모	환조(桓祖)/ 의혜왕후(懿惠王后)	피안자 생몰	1335.10.11.~ 1408.05.24
	안태 연월일	1393.01.07 (근거 : 『태조실록』)	
	안태 기록1	영흥(永興) 준원전(濬源殿) (근거 : 『임하필기』)	
	안태 기록2	진산(珍山) 만인산(萬仞山) (근거 : 『정조실록』)	
	안태 기록3	전북 금산군 추부면 (근거 : 『서삼릉 태조 태실 후면 각자』)	

용어는 테마 파크 개별 전시관을 그렇게 부르는 데서 착안하였다. 그는 파빌리온 개념 도입은 자료와 자료의 연계를 통해 자료에 담긴 대상물들의 의미와 문맥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 현장의 장소감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818~822쪽.

128) <http://dh.aks.ac.kr/seosamneung>

안태지 좌표	36°19'47.38"N(위도)/ 127°45'26.68"E(경도)		
안태지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산4		
문화재 지정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태조 태실 석물)		
이안 연월일	1930.04.15. (근거 : 『태봉』)		
이안지 주소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안지 좌표	37°66'45.61"N(위도)/ 126°86'06.29"E(경도)		
지문	高麗忠肅王後四年乙亥十月十一日生 太祖高皇帝胎 康熙二十八年 己巳三月二十九日藏于太田郡山內面 昭和四年 月 日 移葬		
지문 찬자	이왕직 예식과 (李王職 禮式課)	지문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관련 유물1	태조 태지석 및 외향아리 몸체와 뚜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관련 유물2	조선도자 태조 태향아리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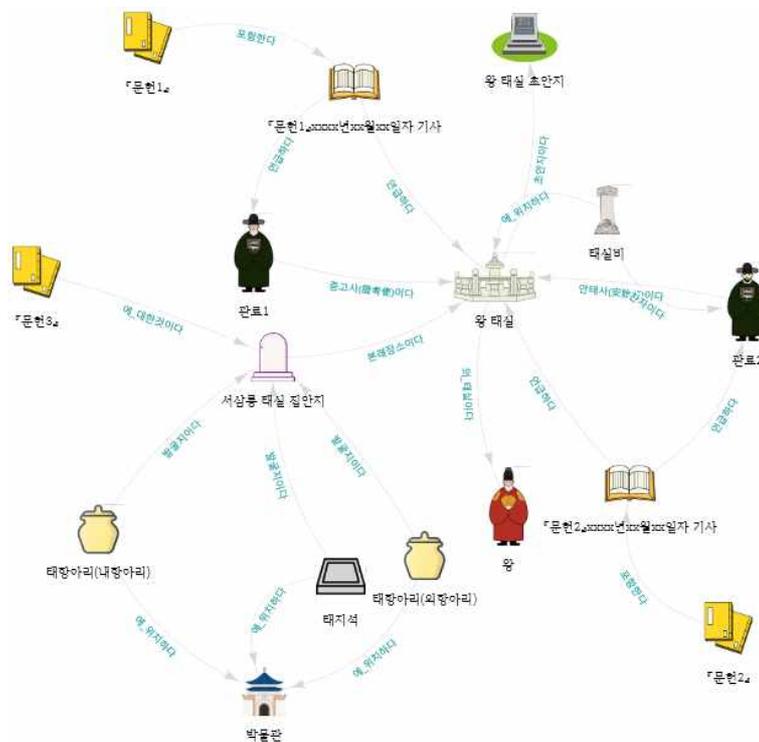
표 III-6. 태조 태실 메타데이터 예시

조선왕실 태실 메타데이터 구축은 앞서 수집된 문헌·인물·장소·사진·영상 등 5가지의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위키 내 각각의 문서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이용자가 태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IV. 조선왕실 태실 온톨로지 설계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조선왕실 태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조선왕실 태실과 관련한 여러 문헌 자료 속의 기사, 인물, 장소, 사진, 영상 등의 개별 정보들이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정보에 대한 상호적 접근과 탐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정보 자원들의 기술 체계인 온톨로지(Ontology)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온톨로지는 정보화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구조화하고 분류하기 위한 틀이다.¹²⁹⁾ 온톨로지의 구성요소는 클래스(Class), 관계성(Relation), 속성(Attribute), 개체(Individual) 등을 포함한다. 가장 일반적인 온톨로지 설계 방법은 대상자원을 ‘클래스’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클래스의 속하는 ‘개체’들이 공통의 ‘속성’을 갖도록 하며, 그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과 맺는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¹³⁰⁾ 본 연구에서 설계한 조선왕실 태실 온톨로지 모델의 명칭은 JRPC(Joseon Royal Placenta Chamber)로 명명하였다.



1. 클래스(Class) 및 속성(Attribute) 설계

조선왕실 태실의 온톨로지 클래스는 태실(Placenta_Chamber), 행위자(Actor), 문헌(Document), 사료(Record), 사건(Event), 장소(Place), 유물(Heritage) 등 총 7개로 구성되었다. 클래스 분류는 한국문화 Encyves 온톨로지(EKC)¹³¹⁾를 참조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클래스	한글명	설명
Placenta_Chamber	태실	물리적 공간에 위치한 대상이 아닌, 특정 인물의 태실을 개념화하여 이를 태실이라 명명한다.
Actor	행위자	사료 속에서 나타난 태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객체를 포함한다.
Document	문헌	사료라는 텍스트를 담고 있는 특정한 서지, 도상, 금석문 등을 포함한다.
Record	내용	구체적인 행위가 기록된 문헌 내의 기사, 명문을 대상으로 한다.
Event	사건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일을 대상으로 한다.
Place	장소	물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소장처, 사찰, 도시명 등 다양한 공간을 포괄한다.
Heritage	유물	태실이라는 대상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태향아리, 태지석, 태실비 등을 포함한다.

표 IV-1. 온톨로지 클래스 설계표

1) 태실(Placenta_Chamber)

태실 클래스는 초안지와 이안지로 각각 나뉘어 있는 태실이라는 대상 자체를 개념화하여 다루기 위해, 물리적 공간성을 가질 수 있어 장소 클래스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는 태실을 별도로 구분하여 하나의 독립된 클래스로 설정하였다. 태실은 신분의 구별에 따른 가봉태실, 아기태실과 태실이 본래 조성되었던 태실 초안지, 그리고 별도의 장소에 태실이 이안되었을 때 발생하는 태실 이안지, 일제강점기 일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나타난 서삼릉 태실 집안지 등 5개의 하위 클래스로 구성하였다.

클래스	하위 클래스	개체 예시
Placenta_Chamber	가봉태실	태조 태실, 정종 태실, 태종 태실 등
	아기태실	인성대군 태실, 안양군 태실, 완원군 태실 등
	태실 초안지	영흥 준원전, 함흥 경흥전, 사천 세종 태실 초안지 등

131) 2016~201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실에서 수행한 『한국 기록유산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및 『문화유산 속의 인물에 관한 시각적 스토리텔링 자원 개발』 연구를 통해 설계된 데이터 모델이다.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EKC_Data_Model-Draft_1.1

	태실 이안지	금산 태조 태실 이안지, 김천 태조 태실 이안지 등
	서삼릉 태실 집안지	서삼릉 태조 태실, 서삼릉 정종 태실 등

표 IV-2. 태실 클래스 설계표

태실 클래스는 10개의 속성을 가진다. jrpc:class는 하위 클래스를 표기하기 위한 속성이다. jrpc:id는 서삼릉에 위치한 태실들의 순서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jrpc:label은 대표명으로 한글명과 한자명을 병기한다. jrpc:object는 태실의 주인을 명시하고, jrpc:construct_moment와 jrpc:shift_moment는 태지석과 『태봉』에 기술된 안태·이안 연월일을 참조하여 명시하였다. jrpc:infoUrl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위키 내 각각의 태실 문서와 연결하였다.

속성	설명
jrpc:class	클래스
jrpc:id	식별자
jrpc:label	대표명
jrpc:k_name	한글명
jrpc:c_name	한자명
jrpc:e_name	영문명
jrpc:object	피안자
jrpc:construct_moment	안태 연월일
jrpc:shift_moment	이안 연월일
jrpc:infoUrl	위키 문서 Url

표 IV-3. 태실 클래스 속성 설계표

2) 행위자(Actor)

행위자 클래스는 태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체와 객체를 포함하고 하위 클래스로는 인물과 단체로 구분하였다.

클래스	하위 클래스	개체 예시
Actor	인물	태조, 권중화, 정종, 민제, 태종, 하륜 등
	단체	예조, 이조, 관상감, 이왕직 등

표 IV-4. 행위자 클래스 설계표

행위자 클래스는 7개의 속성을 가진다. jrpc:status는 사료 속 등장인물의 신분 에 따른 구별을 짓기 위한 것이다. jrpc:infoUrl는 디지털 백과사전 등에 인물·단체 와 유관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표기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3) 문헌(Document)

속성	설명
jrpc:class	클래스
jrpc:label	대표명
jrpc:k_name	한글명
jrpc:c_name	한자명
jrpc:status	신분
jrpc:lifetime	생몰년도
jrpc:infoUrl	유관 웹 자원 Url

표 IV-5. 행위자 클래스 속성 설계표

문헌 클래스는 사료라는 텍스트를 담고 있는 문서를 명시하며 하위 클래스로는 해당 문서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서지, 도상, 금석문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금석문은 태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금석문을 뜻하나, 태지석, 태실비는 유물 클래스로 분류하였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클래스	하위 클래스	개체 예시
Document	서지	태조실록, 정종실록, 승정원일기 태봉등록 등
	도상	순조 태봉도, 헌종 태봉도, 창덕궁 태봉도 등
	금석문	태실 석물 중수 정공 옥제 불망비, 경모궁 태실 감역 각석 등

표 IV-6. 문헌 클래스 설계표

문헌 클래스는 6개의 속성을 가진다. jrpc:creator는 해당 문헌의 저자가 명시되어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속성	설명
jrpc:class	클래스
jrpc:label	대표명
jrpc:k_name	한글명
jrpc:c_name	한자명
jrpc:creator	창작자
jrpc:infoUrl	유관 웹 자원 Url

표 IV-7. 문헌 클래스 속성 설계표

4) 내용(Record)

내용 클래스는 문헌 자료 속 태실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최소 단위의 개체 데이터로 정리하고 이를 명시하기 위한 틀이다.¹³²⁾ 문헌 클래스의 개체가 해당 기록이 지닌 여러 상위 정보를 속성으로 취한다면, 내용 클래스의 개체는 해당 기록의 구체

132) 본 연구에서 내용 클래스는 류인태의 내용(Entry) 클래스 분류를 참조하였다. 류인태, 앞의 논문, 2019, 72쪽.

적인 내용으로서, 원문과 번역문 그 자체를 속성으로 갖는다. 내용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는 상술한 원문과 번역문을 포함한다.

클래스	하위 클래스	개체 예시
Record	원문	遣三司左僕射權仲和 安胎室于完山府 珍同縣 陞其縣爲珍州.
	번역문	삼사 좌복야 권중화를 보내어 태실을 완산부 진동현에 봉안하고, 진동현을 승격시켜 진주로 삼다.

표 IV-8. 내용 클래스 설계표

내용 클래스는 5개의 속성을 가진다.

속성	설명
jrpc:class	클래스
jrpc:label	대표명
jrpc:moment	연월일
jrpc:resource	근거문헌
jrpc:infoUrl	유관 웹 자원 Url

표 IV-9. 내용 클래스 속성 설계표

5) 사건(Event)

사건 클래스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한 일을 명시한다. 하위 클래스로는 태실 조성·수개, 제도 시행, 태실 이안, 태실 작변 등 태실이라는 대상이 문헌 자료 속에 나타나는 여러 양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류하였다.

클래스	하위 클래스	개체 예시
Event	태실 조성·수개	태조 가봉태실 조성(1393)
	제도 시행	태실도감 설치(1418)
	태실 이안	서삼릉 태실 이안(1930)
	태실 작변	경종 태실 작변(1831)

표 IV-10. 사건 클래스 설계표

사건 클래스는 5개의 속성을 가진다.

속성	설명
jrpc:class	클래스
jrpc:label	대표명
jrpc:moment	연월일
jrpc:resource	근거내용
jrpc:infoUrl	유관 웹 자원 Url

표 IV-11. 사건 클래스 속성 설계표

6) 장소(Place)

장소 클래스는 물리적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하위 클래스로 소장처, 궁궐, 능묘, 사찰, 도시명 등 5개의 다양한 공간을 포괄한다.

클래스	하위 클래스	개체 예시
Place	궁궐	창덕궁 후원
	능묘	건원릉, 인성대군 묘 등
	사찰	명봉사, 선석사 등
	도시명	금산, 고양 등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표 IV-12. 장소 클래스 설계표

장소 클래스의 속성은 7개로 명시하였다.¹³³⁾

속성	설명
jrpc:class	클래스
jrpc:label	대표명
mf:currentAddress	현재 주소
mf:currentStatus	현재 상태
mf:statusDescription	상태 설명
jrpc:infoUrl	유관 웹 자원 Url

표 IV-13. 장소 클래스 속성 설계표

7) 유물(Heritage)

유물 클래스는 태실이라는 대상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하위 클래스로는 태항아리, 태항아리 관련 유물, 태지석, 태실비, 태실 관련 석물, 등을 포함한다.

클래스	하위 클래스	개체 예시
Heritage	태항아리	태조 태항아리 (외항아리 몸체와 뚜껑)
	태항아리 관련 유물	덕혜옹주 태항아리 부속유물(목간), 덕혜옹주 태항아리 부속유물(동전) 등
	태지석	태조 태지석
	태실비	태조 가봉태실비
	태실 관련 석물	단종 태실 연엽주석

표 IV-14. 유물 클래스 설계표

133) mf는 김현규의 분류에서 참조하였다. 김현규, 앞의 논문, 2018, 60쪽.

유물 클래스의 속성은 6개로 명시하였다.¹³⁴⁾ jrpc:classification의 문화재 분류는 해당 태실의 유물 가운데 문화재 항목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표기하기 위함이다. edm:currentLocation은 일부 태실 관련 석물이 안태지 인근에 흩어져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거되어 보호를 위해 창고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 반드시 태실 관련 유물들이 박물관 수장고에만 존재하지 않음을 상정하여 위치라 명명하였다.

속성	설명
jrpc:class	클래스
jrpc:label	대표명
jrpc:classification	문화재 분류
edm:currentLocation	위치
jrpc:object	대상 태실
jrpc:infoUrl	유관 웹 자원 Url

표 IV-15. 유물 클래스 속성 설계표

2. 관계성(Relation) 설계

관계성은 개체와 개체가 상호 간 가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다. 관계성은 하나의 개체에 대한 정보를 표현하는 속성과 달리 두 개의 개체 간 상호 관계를 표현하므로 RDF를 표준으로 서술된다. 예시로 ‘권중화는 태조 태실의 태실증고사이다’라는 내용이 지닌 관계성을 RDF로 명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⁵⁾



그림 IV-2. RDF로 명시한 관계성 표현 예시

본 연구는 앞서 설계한 7개의 클래스와 각각에 속하는 개체들 간의 관계성을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서술어를 정의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상 세계가 개체 간 맺고 있는 맥락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정의라 판단되는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결과 총

134) edm은 유로피아나에 제공되는 문화유산 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톨로지 모델이다.

135) RDF에서는 주어 → 서술어 → 목적어로 이루어진 3요소들로 하나의 문장(Statement)을 구성한다. 이러한 3요소로 구성된 조합을 트리플(Triple)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트리플은 RDF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단위이다. 간자키 마사히데(神崎正英) 저, 황석형, 양해술 공역, 『시맨틱 웹을 위한 RDF/OWL 입문』, 흥릉과학출판사, 2008, 16쪽.

17개의 서술어를 정의하였다.

relation	Domain	Range	설명
hasSon	A	B	A는 B를 아들로 두다
hasDaughter	A	B	A는 B를 딸로 두다
hasWife	A	B	A는 B를 아내로 삼았다
isTombOf	A	B	B는 A의 무덤이다
isPlacentaChamberOf	A	B	B는 A의 태실이다
formerLocation	A	B	A의 초안지는 B이다
originalPlace	A	B	A의 본래 장소는 B이다
mentions	A	B	A에 대해 B가 언급하다
isLocatedIn	A	B	A는 B에 위치한다
isAbout	A	B	B는 A에 대한 것을 나타낸다
isRelatedTo	A	B	A와 B는 관련이 있다
provenance	A	B	B는 A의 발굴지이다
preparer	A	B	A는 B의 태실증고사이다
director	A	B	A는 B의 안태사이다
isNextInSequence	A	B	A는 B의 이안지이다
hasPart	A	B	A는 B를 포함한다
Creator	A	B	A는 B의 창작자이다

표 IV-16. 조선왕실 태실 관계성 설계표

(추후작성) 각 클래스 간의 관계성 서술 예정

3. 데이터베이스 구현

(추후작성) 서삼릉 위키 내의 표본 태실 문서를 대상으로 서술

V. 조선왕실 태실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된 조선왕실 태실의 디지털 아카이브 내 위키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못했던 태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는 태실에 대한 조형적 특성과 해당 태실의 조성 및 연혁을 파악하던 그간의 학술 연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태실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찾아내고, 태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 콘텐츠 창작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 건국 시조의 탄생과 신화, 태조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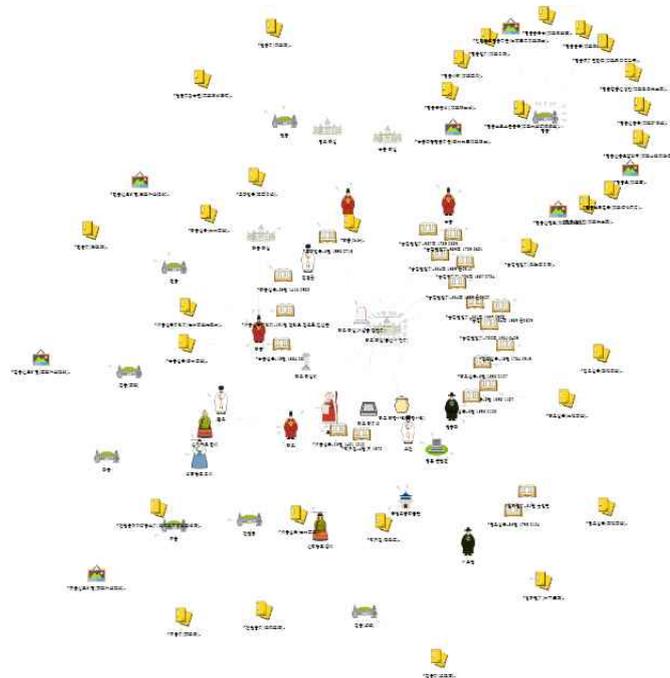


그림 V-1. 태조 태실 네트워크 그래프

고대부터 백성 위에 군림하는 군주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생각은 겹겹이 쌓여 전해 내려왔다. 이러한 관념은 군주의 탄생을 운색하고 더러는 기이한 이야기를 만들어 신화를 창조하고, 그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조된 신화를 집단의 기억으로 승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주를 수식하였던 여러 상징물들은 이렇게 형성된 기억이 현실에서 시각화하고자 한 노력으로 그 대상은 조선왕실의 태실도 포함되었다.

조선을 개창한 건국군주 태조는 이미 그 선대들로부터 하늘이 택한 임금이었음을 『태조실록』에서 수차례 언급하면서 그 신성성(神聖性)을 강조하였다. 특히 태조와

그 4대조가 누대로 기거하던 함흥과 영흥은 왕실의 발상지로 중시되었고, 그 사적(事績)이 얽혀있는 집들은 임금이 살던 잠저라 하여 각각 함흥본궁(咸興本宮), 영흥본궁(永興本宮), 준원전(濬源殿) 등으로 개칭되어 선왕의 위패나 어진(御眞)을 봉안하여 제향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작성중)

2. 역사적 실재와 기억의 변주곡, 단종 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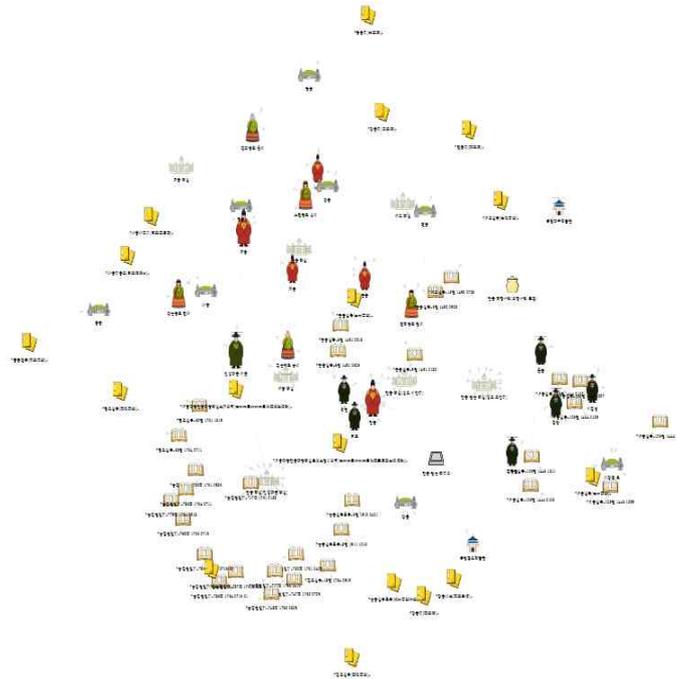


그림 V-2. 단종 태실 네트워크 그래프

(추후작성) 세조에 의해 파괴당한 성주의 단종 태실과 조선후기 단종의 태실로 오인된 사천의 인성대군 태실이 어떻게 차츰 단종의 태실로 정착해나갔는지 서술 예정.

4. 조선시대 안태사의 인적사항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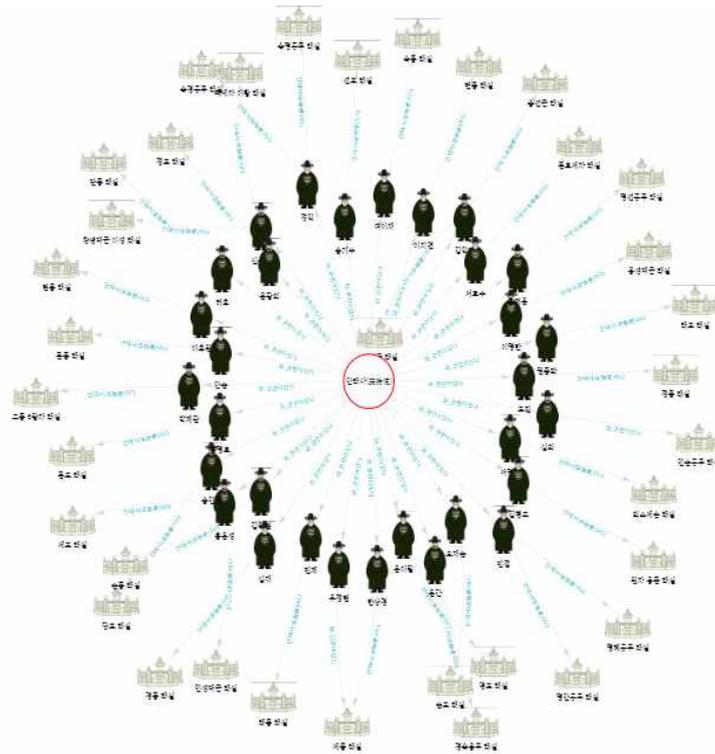


그림 V-4. 조선시대 안태사 네트워크 그래프

안태사는 왕실에서 태실을 조성할 때 관상감에서 태실지로 낙점한 지방까지 태를 모시고 안치하는 일을 총괄하던 임시 관직이다.¹³⁶⁾ 주로 2품 이상의 관원이 임명되었으며 안태사는 종사관·배태관·서표관¹³⁷⁾·전향관¹³⁸⁾·주시관¹³⁹⁾·감역관¹⁴⁰⁾ 등 중앙에서 파견되는 여러 관원들을 대동해 태실을 조성할 터(基址)로 나아가 태실 조성이 모두 끝날 때까지 각종 업무를 총괄했다.

안태사로 임명됐던 인물들은 각종 기록에 단편적으로 전하는데 아직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리나 체계적인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인물이 안태사로 임명 되었고 임명된 당시 전후맥락과 역임한 관직 등을 확인한다면 조선 시대 안태사 운영의 실체와 조선 왕실의 태실이 지니는 의미에 보다 가까워지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¹⁴¹⁾

136) 각주64 참조.

137) 태지석과 태실비에 각석할 글씨를 담당하는 관원.

138) 태신안위제와 후토고유제에 쓸 축문과 향을 담당하는 관원.

139) 태실 조성과 관련한 여러 의례의 시간을 알리는 관상감 소속 관원.

140) 안태사의 출발에 앞서 먼저 태실 조성 현장에 도착하여 석물을 뜨고 감독하던 관원.

141) 안태사에 임명과 연관된 인물들의 종합적인 정보를 표현한 지식 관계망은 하술한 URL에서 서비스 되고 있다. 각 노드에 표기된 인물 아이콘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왕조실록 위키를 비롯한 유관 웹 자료로 연결되어 해당 인물과 관련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조선 전기 안태사의 인적 사항 추적

조선전기 안태사로 임명된 인물은 다음의 표와 같다.

태실	인물	관직	인적사항
태조 태실	권중화	삼사좌복야	태실증고사
정종 태실	조진	중추원사	
태종 태실	민제	여흥부원군	원경왕후의 父
세종 태실	한상경	서원부원군	개국공신 3등
	권규	길창군	태종 3년 경안공주의 夫
문종 태실	안순	판중추원사	개국공신 안경공의 子
단종 태실	허후	예조판서	영의정 허조의 子
세조 태실	홍윤성	예조판서	정난공신 2등
인성대군 태실			
폐세자 황 태실	신수근	우찬성	거창군부인 신씨의 母
창녕대군 태실			

표 V-1. 조선 전기 안태사 표

조선전기의 안태사 임명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왕실과 밀접한 친연성, 즉 공신 또는 외척이라는 신분·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인사를 선발했다는 점이다. 태실 조성은 ‘기복의례’적 측면이 강했지만 장차 왕실의 구성원이 될 왕자, 왕녀를 비롯해 훗날 나라를 다스릴 국왕의 탄생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측면 역시 존재했다. 안태사 임명된 인물들 대다수가 정2품 이상의 정경(正卿)에서 차출된 점 또한 의례의 양식과 관련이 있다. 정식적인 국가의례로 포섭되지 않았음에도 태실의 조성은 왕실과의 친연성을 매개로 한 집권세력의 관원이 지방으로 파견되어 군주·왕실 중심의 지배질서를 만물에 부여하는 중심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극장국가(theater states)’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⁴²⁾

안태사 또는 안태와 관련된 관원 임명에 있어서 형관으로 재임 중이던 유정현을 개차하여 한상경을 임명한 사례나 품행의 문제로 해임된 심의의 사례는 겸관(兼官)으로 안태사를 임명할 경우 해당 관원이 현지로 파견되기에 직무의 정체를 방지하려는 현실적인 이유 역시 고려할 수 있겠으나,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풍수의 동기감응론이 안태사 임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

『은대조례』 「예고」 약방 조에 ‘안태사는 종실 및 조신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을

조선전기 안태사의 지식관계망 : http://dh.aks.ac.kr/seosamneung/index.php/조선전기_안태사_지식관계망

조선후기 안태사의 지식관계망 : http://dh.aks.ac.kr/seosamneung/index.php/조선후기_안태사_지식관계망

142) 캐서린 벨, 류성민 옮김,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362~363쪽.

이조에서 차출한다¹⁴³⁾라고 했는데 이는 태를 길지에 묻어 땅의 기운을 통해 복을 얻는 것 외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태와 감응하여 장차 태주의 운명을 좌우함에 있어 하나의 요소가 되었으리란 추정이 가능하다. 안태사의 임명이 여러 현실적 요건과 맞물려 당대인들의 의식 기저에도 일정 정도 근거하고 있었음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조선 왕실 태실 조성의 여러 역사적 맥락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 후기 안태사의 인적 사항 추적

공신·외척으로 대표되는 조선전기 집권세력이 소멸된 후 향촌을 근거로 하며 사우(師友)와 봉당이라는, 이전 집권세력과 판이한 인적 관계를 매개로 한 사람 집단의 등장은 조선후기에 들어서 안태사 임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왕실과의 직간접적인 신분·혈연적 유대를 배경으로 임명된 조선전기 안태사들과 달리 조선후기의 안태사는 가문이 왕실과의 연관이 있는 경우가 드물며 파견 당시 역임한 관직 또한 조선전기와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후기 안태사 및 안태사 임명과 관련된 인물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태실	인물	관직	인적사항
선조 태실	송기수	이조판서	
숙명공주 태실	정익	경상좌병사	
숙경공주 태실			
명선공주 태실	홍처윤	오위장	
숙종 태실	여이재	형조판서	
경종 태실	심재	이조판서	
영조 태실	윤이립	예빈시정	
장조 태실	송인명	이조판서	
의소세손 태실	서명구	병조참판	정성왕후 父 서종제의 弟 서종신의 子
정조 태실	윤광의	도승지	
문효세자 태실	서호수	한성부판윤	서명응의 子 서유구의 父
순조 태실	오재순	이조판서	명안공주의 孫
헌종 태실	이지연	공조판서	세종의 子 광평대군 14世孫
철종 원자 태실	김병교	한성부판윤	安東金門
순종 태실	김익진	공조판서	명성황후 捲草官
영친왕 태실	김규복	시종원봉시	中官

표 V-2. 조선 후기 안태사 표

143) 『銀臺條例』 「禮放」 藥房, “産室廳前期三朔設廳 捲草官 安胎使 宗室及朝臣中有福人 自吏曹差出.”

조선후기 안태사 임명은 조선전기와 달리 신분적, 혈연적 배경이 특수한 경우는 일부이며 보다 다양한 인물이 선출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차츰 안태사 임명이 제도적으로 완비되는 양상과 무관하지 않는데 홍처윤, 윤이림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개 아경에 속하는 정2품 이상의 관원들이 안태사로 임명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조 대에 들어서면서 1750년(영조 26) 원자안태사는 정경, 원손안태사는 아경을 책정하되 세자의 자녀인 왕손, 군주, 현주는 안태사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분화된 규정이 추가되었다.

영조에 의한 안태사 임명의 차등은 엄격하게 지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순조 대 정경 가운데 합당한 인물이 없자 아경이던 이지연의 품계를 승차하여 안태사로 임명하도록 하였던 사례와, 고종의 자녀인 순종의 안태사로 정2품 관원이 임명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영조의 1750년 하교는 조선후기 품계에 따른 안태사 임명의 객관적 준거로 적용되었다 볼 수 있다.

(추후작성 예정) 각 안태사의 인적사항 상술 및 네트워크 그래프로 표현 예정.

VII. 결론

(추후작성) 연구의 요약 및 보완점 서술, 추후 디지털 아카이브 정교화 방안에 대한 제시

【참고문헌】

1. 史料

1) 문헌

- 『太祖實錄』 (1413)
- 『定宗實錄』 (1423)
- 『太宗實錄』 (1431)
- 『高麗史』 (1451)
- 『世宗實錄』 (1454)
- 『文宗實錄』 (1455)
- 『世祖實錄』 (1471)
- 『成宗實錄』 (1499)
- 『燕山君日記』 (1509)
-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
- 『中宗實錄』 (1546)
- 『宣祖修正實錄』 (1657)
- 『四佳詩集補遺』 (1705)
- 『秋坡集』 (1753)
- 『北道陵殿誌』 (1758)
- 『金山直指寺重記』 (1776)
- 『春官通考』 (1788)
- 『銀臺條例』 (1870)
- 『林下筆記』 (1871)
- 『大東野乘』 (미상)

2) 금석문

- 『成宗胎誌石』 (1458)
- 『睿宗胎誌石』 (1462)
- 『世子嬪女壽億阿只氏胎誌石』 (1493)
- 『王子康壽阿只氏胎誌石』 (1499)
- 『元子金石乙伊阿只氏胎誌石』 (1501)
- 『大君仁壽阿只氏胎誌石』 (1501)

- 『王子敦壽阿只氏胎誌石』 (1505)
- 『王女貞壽阿只氏胎誌石』 (1505)
- 『王子泰壽阿只氏胎誌石』 (1506)
- 『仁宗胎誌石』 (1515)
- 『主上殿下胎室碑』 (1546)
- 『睿宗大王胎室碑』 (1578)
- 『成宗大王胎室碑』 (1823)
- 『翁主福億胎誌石』 (1929)
- 『王女福合胎誌石』 (1929)
- 『王女靈壽胎誌石』 (1929)

2. 단행본

- 가평군사편찬위원회, 『가평군지 2 -내력과 자취』, 가평군, 2006.
- 강원대학교 박물관, 『가평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가평군, 1999.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별고을 성주, 생명을 품다 : 선석산 세종대왕자 태실 이야기』, 성주군, 2015.
- _____,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세계의 장태문화』, 성주군, 2016
- _____,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의 종합적 검토』, 성주군, 2016.
- _____, 『성주금석문대관 2』, 성주문화원, 2018.
- 관동대학교 박물관, 『三陟의 歷史와 文化遺蹟』, 삼척시, 1995.
- 김득환, 『조선의 세계적인 문화유산 태실』, 책임는사람들, 2016.
- _____, 『조선의 세계적인 문화유산 태실 2』, 책임는사람들, 2018.
- 김용숙, 『한국 女俗史』, 민음사, 1989
-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 김현, 임영상, 김바로 공저,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 노상규, 박진수 공저, 『온톨로지 인터넷 진화의 열쇠, 웹 2.0에서 3.0으로』, 가즈토이, 2007.
- 삼척시지편찬위원회, 『삼척시지』, 삼척시, 1997.
- 서윤길,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2006.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예천군지편찬위원회, 『예천군지 하권 -예천의 문화재』, 예천군, 2005.
- 윤진영, 『조선왕실의 안태의례』, 세창출판사, 2020.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례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이규상, 『韓國의 胎室』, 청원문화원, 2005.

이병하, 김택훈, 박진호, 오원석, 이명진 공저, 『알기 쉬운 Linked Open Data』, 한국정보화진흥원 지식자원활용부, 2015.

이주환, 이진훈, 조원교 공저, 『朝鮮의 胎室』 I·II·III,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이토 겐타로(伊藤健太郎), 사토 유우키(佐藤勇紀), 하마자키 스구루(濱崎俊) 공저, 정재은, 이인근, 황도삼 공역, 최기선 감수, 『시맨틱 웹』, 두양사, 2015.

전주시, 전주문화원, 『전주시사』, 전주시, 1997.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저, 장병길 역, 『황금가지 1』, 올재, 2018.

칸자키 마사히데(神崎正英) 저, 황석형, 양해술 공역, 『시맨틱 웹을 위한 RDF/OWL 입문』, 흥릉과학출판사, 2008

캐서린 벨 저, 류성민 역,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출판부, 2007

한국학문화연구소, 『直指寺誌』, 아세아문화사, 1980.

허경진, 구지현,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연구일지』, 보고서, 2016.

황수영, 『韓國金石文遺文』, 일지사, 1994.

中村禎里, 『胞衣の生命』, 海鳴社, 1999.

3. 도록·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西三陵胎室』, 1999.

_____, 『조선왕실의 胎峰』, 2008.

대동문화재연구원, 『성주 태종·단종태실 학술(지표)조사 결과보고서』, 201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忠南地域의 文化遺跡 13 -瑞山市篇』, 2001.

문화재청,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産俗篇)』 上卷, 1993.

문화재청,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 (産俗篇)』 下卷, 199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2019.

4. 논문

김광우, 「일제강점기 대중예술 활동의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오케레코드 사장 이철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김득환, 「서삼릉 -능역의 능묘와 태실 등에 대한 고찰-」, 『京畿郷土史學』 12,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2007.

김미정, 「儀軌 復飾 정보의 電子的 활용 방안 연구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김바로, 「제도과 인사의 관계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 -근대 학교 자료 (1895~1910)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김사현, 「문화유적 안내 정보 모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지선, 「19세기 여향전기집 수록 인물 관계망 구현 및 분석 연구 -『호산외사』, 『이향견문록』, 『희조일사』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김하영, 「門中古文書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 김현, 안승준, 류인태,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 방법의 모색: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횡단인문학』 창간호,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 김현규, 「3·1운동에 관한 개방적 연계 데이터 구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노성환, 「고대 일본에서 본 한국의 태실문화」, 『일어일문학』, 제77집, 2018.
- 류인태, 「데이터로 읽는 17세기 재지사족의 일상 -『지암일기』(1692~1699) 데이터베이스 편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 심현용, 「高麗時代 胎室에 관한 考古學的 試論」, 『江原史學』 제27권, 2015.
- _____, 「朝鮮時代 胎室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조선초 영주 소헌왕후 태실의 조성과 구조 복원」, 『嶺南考古學』, 제68집, 2014.
- 윤무병, 「廣州 元堂里 胎封」, 『考古美術』 통권56·57호, 한국미술사학회, 1965.
- 윤석인, 「西三陵胎室 奉安遺物에 대한 研究」, 『江原考古學報』 11, 강원고고학회, 2008.
- _____, 「朝鮮王室의 胎室 變遷 研究 -西三陵 移藏 胎室을 中心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_____, 「朝鮮王室의 胎室石物에 관한 一研究 -西三陵 移藏 원胎室을 中心으로-」, 『文化財』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 윤진영, 「조선 후기 安胎儀禮의 개선과 정비」, 『朝鮮時代史學報』, 제67집, 2013.
- 이재욱, 「조선시대 科擧 合格者의 디지털 아카이브 편찬과 인적 관계망 구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최호림, 「朝鮮時代 胎室에 관한 一研究」, 『韓國學論集』, 제7호,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5.
- 호정, 「한·중 도자유물 가상 박물관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홍성익, 「조선전기 王妃 加封胎室에 관한 연구」, 『사학연구』, 제117호, 2015.

鐘方正樹, 「袍衣を納むる位置と方角」, 『奈良市埋藏文化財調査センター紀要』, 奈良市教育委員會, 1989.

5. 웹 자원

경기도청, <https://www.gg.go.kr/>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 <https://www.gogung.go.kr/>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http://www.emuseum.go.kr/>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in.do>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http://royal.cha.go.kr/>

서삼릉 wiki, <http://dh.aks.ac.kr/seosamneung/index.php/>

위키 실록사전,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

인문정보학 wiki, <http://dh.aks.ac.kr/Edu/wiki/index.php/>

조선왕조실록사전, <http://encysillok.aks.ac.kr/>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go.kr/main.do>

한국 기록유산 Encyves, <http://dh.aks.ac.kr/Encyves/wiki/index.php/>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